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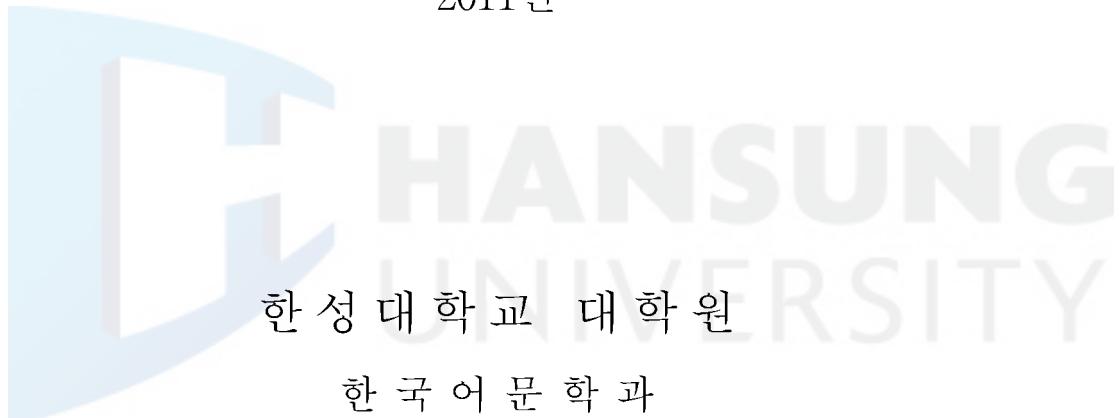


석사학위논문

수필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읽기·쓰기 통합 교육을 중심으로-

2011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동환

수필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읽기·쓰기 통합 교육을 중심으로-

A Stud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Using Essay Literature Texts:
Integrated Education of Reading and Writing

2011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최희명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동환

수필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읽기·쓰기 통합 교육을 중심으로-

A Stud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Using Essay Literature Texts:
Integrated Education of Reading and Writing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최희명

최희명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국 문 초 록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최 희 명

수요자 중심,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그 실용적인 면이 강조 되어왔다. 또한 학습자의 국적, 연령, 학습 목적 등도 다양하여 이를 고려한 교수-학습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교,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 고급수준의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업의 활용 제재로 수필 텍스트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제시한 여러 작품 중 박완서의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로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수필의 내용을 이해, 추론, 감상하는 읽기 활동과 읽기를 통한 단계별 쓰기 활동을 연계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그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교육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수필 텍스트 활용이 한국어 교육에 가져오는 이점과 실용적 목표를 정리하였다.

언어 교육적 측면에서 분류한 문학의 세 가지 관점을 수필의 속성과 연관시켜 정리하고, 이 세 가지 관점이 잘 드러나는 작품을 각각 선정하여 그 선정의 이유와 구성방법, 핵심어 등을 간단히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교육기관에서 혹은 교사가 한국어 수업의 제재로 수필 작품을 활용하고자 할 때 또 다른 하나의 작품 선정의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시

한 것이다.

구성, 내용, 표현의 면에서 읽기와 쓰기를 연계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고려하였는데, 그 활동의 효과로 첫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과 둘째,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한 이후 바로 맞닥뜨리는 과제나 보고서 쓰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를 기대한다.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문화 습득 등에 이로운 문학 활용 교육이 실질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학습자가 우리 문학에 더욱 우호적인 관점을 취하고 지속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

주요어 : 한국어교육, 문학 교육, 수필 텍스트, 읽기 쓰기 연계, 고급수준의 외국인 학습자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1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4

제 2 장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이론적 검토 8

제 1 절 문학 교육의 필요성	8
------------------------	---

제 2 절 언어 교육적 측면에서의 문학관의 세 층위	10
1. 실체 중심 문학관	10
2. 속성 중심 문학관	12
3. 활동 중심 문학관	13

제 3 절 한국어교육에서의 수필 양식의 유용성	14
1. 한국어교육 제재로서의 수필의 이점	14
2. 한국어교육 제재로서의 수필 텍스트 활용 목적	17

제 3 장 수필 텍스트를 활용한 읽기·쓰기 교수-학습 18

제 1 절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읽기·쓰기 통합 교수-학습 전략	18
1. 읽기 및 쓰기 전략	19
2. 읽기·쓰기 연계 방안	30

제 2 절 수필 텍스트 활용 교육의 실제	32
------------------------------	----

1. 언어 교육적 문학관의 층위에 따른 텍스트 선정	32
2. 읽기·쓰기를 통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안	50
제 4 장 결 론	65
【참고문헌】	67
ABSTRACT	70



표 목 차

<표1> 수필 쓰기 활동을 위한 생성적 사고의 단계	28
<표2> 쓰기 활동의 교수 학습 모형	28
<표3> 작가의 긍정적, 부정적 시각의 변화 과정	35
<표4> 시공간의 변화와 작가의 인식 변화 과정	38
<표5> 시간의 흐름과 사건 전개 과정에 따른 서술	41
<표6> 작가의 인식 변화 과정	45
<표7> 학생 아이디어 생성을 돋는 교사의 시범 예	45
<표8> 단원 지도 계획	50

그 림 목 차

<그림1> 생각 그물 시범의 예	58
<그림2> 다발 짓기 시범의 예	5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방법

수요자 중심, 의사소통 중심을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도 그 실용적인 면이 강조되어 왔다. 실용적인 면이라는 것은 학습자의 국적, 연령, 학습 목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학습자 요인을 고려한 교수-학습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수-학습에 중점을 두고 한다. 이러한 학습자들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인 화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등의 조금 더 심도 있는 부분도 큰 무리가 없이 해낸다. 이러한 특수 목적의 학습자들은 논리적인 글을 쓰는 일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과 만난다. 이는 개인 혹은 팀별로 주어지는 레포트, 연구과제, 혹은 서평 등과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글쓰기는 고급 수준의 학습자라고 결코 쉽게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이러한 화자들의 어려움에 수필 텍스트를 활용한 읽기·쓰기 통합 수업을 통해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이러한 훈련 통해 학생들의 과제 수행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수필 텍스트를 활용한 읽기·쓰기 통합 교수-학습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이니만큼 우선 어떤 수준과 목적을 지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러한 학습자는 수필 텍스트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이다. 다음, 수필이라는 제재가 한국어 교육에 활용될 때의 이점이 어떤 것이며, 수필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이렇게 선정된 작품 중 하나를 골라 교수-학습 전략에 대해 발상을 제시할 것이다.

‘쓰기는 읽기의 완성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수필 텍스트 읽기를 통해 학습자는 수필 쓰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교육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에게도 쉽지 않다는 것을 염두하고 교사는 학생이 내용, 구성, 표현을 이해하는데 학생의 수준에 맞는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적절한 질문을 던져 자극을 주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데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필이라는 장르는 구성적, 내용적, 표현적인 면에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적합한 소재라고 할 수 있겠다. 수필은 사건이나 대상을 선정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을 토대로 서술되는 구성을 따르므로 이러한 원리를 언급하며 읽기·쓰기 훈련을 한다면 논리적인 글쓰기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개인의 체험이나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추론이나 감상하며 읽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사고 과정을 자극하는 읽기 활동은 후에 친교적 글쓰기에도 유익할 것이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깨달음, 반성, 소감, 의견 표명 등으로 소재의 다양성을 갖추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원하는 고급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또한 글쓰기에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관용어, 속담, 문화적 인식으로 이해해야 하는 문화어 등이 풍부하여 표현되어 있어서 고급 수준의 외국인 학습자가 더 높은 수준의 한국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보통 그러한 표현을 바로 말하고 쓰는 표현하기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읽기 활동에서 접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쓰기에 연계시키는 것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각 장별로 제시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문학 교육의 특성과 정의를 확인하고, 기타의 장르와 구별되는 수필장르가 한국어교육에 활용 되었을 때의 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대학 혹은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급 수준의 외국인 학습자에게 수필 텍스트 활용 읽기-쓰기 수업이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수필 텍스트를 통한 문학 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을 논하기 앞서 수필 텍스트의 가치를 세 가지 문학관에 입각해 언급하고, 구심점이 다른 세 관점에서 볼 때에도 수필이라는 제재가 한국어교육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읽기 지도를 위한 전략을 재정립하는 한편, 쓰기 기능의 측면에서는 그 단계를 정리함으로써 구체적인 읽기와 쓰기 연계 활동을 구안하는 데 앞서 이론적인 면에서 접근해 보겠다. 이어서 수필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실제에 대해 논하겠다. 먼저 3장에서 다룬 실체 중심, 속성 중심, 활동 중심으로 구분한 언어 교육적 측면에서의 문학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작품을 예로 들어 한국어교육 제재로서의 수필 텍스트 활용의 가능성은 제안할 것이다. 이때 작품선정의 가장 대표적인 배경, 구성적 특징 등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그 중 박완서의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를 제재로 하여 읽기·쓰기 통합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논의한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문학 제재를 활용하는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와 읽기·쓰기 통합 교육과 관련된 연구, 학문 목적의 한국어 읽기·쓰기 활동과 관련된 논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문학 제재를 활용하는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은정(2002)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한 교육의 가치를 알아보고, 특히 초급 단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동화 텍스트를 활용한 교육 방법을 모색하였다. 세계 명작동화와 한국 전래동화를 텍스트를 선정하고 그 작품의 실례를 여러 편 제시하면서 대학기관의 선생님과 중급 수준의 학습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의도나 시도는 좋았으나 명작이나 전래동화라는 장르 선정에 대한 미리 염두해 두고 설정해 둔 문항이 여럿 있기 때문에 설문지에 대한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학 활용 수업에 스토리텔링 기법과 연결시킨 점과 교수 방안으로 소집단 학습, 코너학습, 칙소학습, 팀터칭 등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안경희(2003)에서는 문학 교육을 넓은 범주의 문화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필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어활동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육기관인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의 교재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필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연세대 문학반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고 서술하면서 한국어 교재의 수필 목록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한 수필 목록 표를 제시하였다. 학습 방안을 수필을 읽기 전·중·후로 나누어서 학습 활동과 학습 유형을 제안하였으나 구체적인 작품을 들어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나정선(2008)은 문학작품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특성, 문화적 특성, 문학

적 특성을 이용하여 언어·문학·문화 통합 중심 한국어 문학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들도 문학의 속성을 몇 가지로 분류한 것은 있지만 교수-학습의 방법을 그 속성에 따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을 위해서 문학 작품의 한국어 교육적 효용성과 문학 작품 목록의 선정 원리를 논의한 후에 국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선정된 한국어 문학 교육을 위한 문학 작품 목록을 학습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이때 학습 자료를 일반 목적, 학문 목적, 직업 목적, 결혼이민자로 나누어서 학습자의 목적에 따른 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논했는데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못 했지만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는 부분이었다.

김연희(2010)는 문학작품의 선정에 노력을 기울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 70명과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문학 활용 교육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와 수필 목록을 제시하였다. 작품의 제시와 함께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회화와 사진의 시각매체를 함께 사용하였다. 이는 추상적인 문학 표현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고, 문법 구조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초·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현장 수업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남으며 교수법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이 아쉬웠다.

이상의 연구들은 그 학습 대상자의 수준 설정과 활용하고자 한 문학 작품의 장르는 다르지만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비중을 두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다양한 장르를 이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연구자들도 인정하듯이 제안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문학 작품은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교수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읽기·쓰기 통합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정흠(2003)에서는 인지심리학자인 비고츠키와 피아제의 이론을 비교 설명하여 읽기와 쓰기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언어 기능간

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에서 읽기와 쓰기의 통합에 대한 문제가 유독 강조되는 것은 그만큼 읽기와 쓰기가 통합적으로 지도가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공통적인 속성을 정리하면서 비슷한 유형의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의미 성성의 과정이 같다는 것, 또 모두 사고 작용 행위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읽기를 전, 중, 후 단계로 나누어 가능한 활동들을 소개하였고 쓰기 활동은 준비, 전개, 정리의 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서 하는 쓰기 활동 과정을 제안하였다.

최소운(2006)에서는 수필쓰기 교육의 방법 연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수필쓰기 교육은 지도의 주체가 없이 학습자에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교사에 의해 계획적이고도 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둘째, 수필에 대한 교육은 이해활동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단계 모형에 따른 전조적 쓰기 활동을 지양하고, 역동적인 쓰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넷째, 개인의 고립적인 쓰기 활동에서 오는 인지 발달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화 전략을 통하여 보다 폭넓고 생각 깊은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본 전제로 하였다. 수필 교육을 과정중심쓰기와 대화중심쓰기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그 전략들을 이용한 지도방법을 연구하고자 하였는데 그 전략들이 쓰기 전, 중, 후 활동으로 나뉘어 자세히 설명되었다. 각 전략에 학습지, 대화장 등이 첨부되어 있어 실제 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지진숙(2008), 이귀염(2011)에서 읽기와 쓰기 교재에 관해 논하였고, 특히 이성지(2007)에서는 수필 활용하는 읽기와 쓰기 통합 수업에 초점을 둔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학 교육 기관의 수필 활용 현황과 수필 작품 선정기준에 비중을 두어 다루었으며, 또한 교수-학습의 예로 구체적인 작품을 들어 학습지도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업지도 방안이 다른 연구들에 비해 실질적으로 상세히 제안된 반면 교수-학습 원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

학문 목적의 한국어 읽기와 쓰기학습과 관련해서는 용재은(2004), 김다혜(2007) 등의 연구가 있다.

용재은(2004)에서는 특히 학문적 텍스트로서 논문을 선택하여 구성 형식과 언어 사용역을 분석하였다. 이는 대학 수학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그 교수-학습 방안이 실질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김다혜(2007)에서는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마인드맵 활용을 제안하였다. 아동의 학습이나 쓰기 교육에만 국한되어 활용되었던 마인드맵의 원리를 바탕으로 교재의 모형을 제시하고 읽기 수업의 단계별로 전략화 하였는데 이는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제 2 장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이론적 검토

제 1 절 문학 교육의 필요성

1. 문학의 성격과 정의를 통해 본 문학 교육의 필요성

교육인적자원부가 편찬한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문학은 인간의 체험과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언어 예술이자 소통 행위이며,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 경험 및 미의식을 담아내는 문화의 한 양식이다. 문학은 음성과 문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매체로 구현되고, 사회·문화의 다른 영역과의 관련 속에서 존재한다.

또, 문학은 인간과 사회 및 역사의 본질을 심미적 언어로 형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며, 공동체의 삶과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그 가치가 있다. 학습자는 문학을 통하여 창의적인 언어 능력과 사고력을 기르고, 정서와 심미 의식을 함양하고 가치관을 확립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다.¹⁾

이상은 국어교육에서 규정하는 문학의 의미와 가치이다. 문학은 미성숙한 아동, 혹은 청소년에게 우리의 삶과 문화 양식을 전달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는 결코 미성숙하지 않지만 국어교육에서 지향하는 바와 같은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문화 양식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녔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문학은 감상하고 향유하는 것 이상으로 효용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교육의 재재로 삼은 수필이라는 장르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문학과 수필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 볼

1) 조현용(2007),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p.116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수필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 제재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문학을 정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그 개념에 접근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구인환·구창환, 1995 : 36-38; 구인환 외 1988 : 103-106).²⁾

첫째, 문학은 언어의 기록이라는 점이다. 언어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문학의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작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 문학은 또한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소통은 일방적이 아니라 항상 쌍방적이다. 그러므로 문학은 작가의 작품 생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읽기 를 통한 반응이 있을 때 비로소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본질적으로 문학은 읽혀져야 하는 것이다.

둘째, 문학은 인간 체험의 반영이다. 인간의 체험을 반영한다 함은 그것이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며 인간이 사는 사회를 반영함을 뜻한다. 문학은 인간의 희노애락과 고뇌를 반영하며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다룬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학을 통하여 인간과 그 인간이 사는 사회를 터득한다. 인간과 사회를 탐구하는 것은 인류학, 사회학, 법학, 윤리학, 철학 등 여러 인문 사회 과학이 담당하고 있지만 문학 또한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예술이다. 문학은 인간의 삶을 탐구한다기보다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역사, 사회학 등에서 개념적 추상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생략되는 많은 구체적 실상을 문학은 총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셋째, 문학은 그 문학을 산출한 사회를 반영한다. 그 나라 문학은 그 나라 구성원의 역사를 반영하며 민족의 정서를 반영한다. 문학은 어떤 면에서 역사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문학을 산출한 당대의 사회를 생생하게 그려내기도 하며, 그리하여 문학의 교육은 민족 문화의 교육이기도 하다. 문학의 교육과정 목표에 한국문학에 나타난 민족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며, 이를 토대로 세계문학 속에서의 한국문학의 바른 위상과 방향을 추구하는

2) 박영복 외 3인(2003), 『국어교육학원론』, 박이정, p.406 참조.

데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교육부, 1995:300)라고 한 것은 문학의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학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록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언어를 보존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또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문화 제반을 심층적이고 총체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의 특성은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 교육의 필요성에 큰 힘을 실어 준다.

제 2 절 언어교육적 측면에서의 문학관의 세 층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학은 어휘, 문법의 요소를 풍부하게 담고 있으며 맥락을 통해 문맥을 파악하거나 의미를 유추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또 우리 삶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 되는데, 문학 안에는 우리의 역사와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나와 내 이웃,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 밖에도 문학 작품을 읽은 후 맛보는 즐거움, 성취감 등도 문학과 관계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속성의 문학은 언어교육적 측면에서 몇 개의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장에서는 김대행 외(2000)이 분류한 실체중심, 속성중심, 활동중심의 세 층위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하고자 한다.³⁾ 아울러 각각의 관점에서 본 속성이 수필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세 가지 문학관에 입각하여 볼 때 그 속성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수필 작품을 선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실체 중심 문학관

실체 중심의 문학관이란 문학을 가시적인 어떤 대상으로 보아 그 존재와 가치를 설명함으로써 문학을 이해하고 설명함으로써 문학에 접근하는 관점을 말한다. 실체(實體)란 ‘현실적·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뜻하는

3) 김대행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9-18 참조.

말로서 문학에서는 실제로 창작되어 전하는 구체적인 작품이나 그 작품의 작자를 뜻하게 된다. 따라서 실체 중심의 문학관에 근거하여 생각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학 작품이 언제 누구에 의해 있었던가에 주로 관심을 두게 된다.

이런 설명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문학사(文學史)이다. 문학사는 이미 있었던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하되 그 가운데서도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을 다루고, 그것이 갖는 가치와 시대적 색과의 상관성에 주목하며, 작품과 작품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따라서 문학사의 주된 관심은 작품과 작가라는 실체에 있게 된다.

이러한 속성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접목하면 학습자는 목표언어의 작품 속에 녹아있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등의 서술을 통해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시대적 상황이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다.

문학에 대한 설명의 또 다른 방식은 문학을 문학 아닌 것과 비교(比較)· 대조(對照)하는 것이다. “신문 기사와 문학은 사실과 허구라는 점에서 다르다.”라든지, “‘메밀꽃’을 사전에서는 ‘메밀의 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효석(李孝石)의 <메밀꽃 필 무렵>에서는 메밀꽃이 편 달밤의 시골 풍경을 배경으로 한평생을 나그네 길에 선 사람의 일생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와 같이 말하는 것도 문학이라는 실체를 문학 아닌 것에 비겨서 문학의 특성을 드러내는 설명이 된다.

사실 이러한 문화 언어는 모든 모국어 화자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화자가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다,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학습자의 수준이 고급 단계에 이르렀다면 기본적인 문화 지식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 문학 작품을 통한 문화 언어의 습득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학습으로 작용하여 한국인과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혹은 학술적인 쓰기를 할 때 그 진가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수필은 경험을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구성이 없고 진솔하며 작가의 개성적 문체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작품 속에는 우리사회와 결

흔 · 장례 등의 생활 문화, 한국 문화에서 용인되거나 혹은 금기시 되는 행동문화, 그 외 광범위한 범주의 가치문화가 작가의 문체로 자연스럽게 담겨 있다.

2. 속성 중심 문학관

속성 중심의 문학관이란 문학을 설명하는 중점을 문학의 특수한 성질에 두는 관점이다. 문학의 구체적인 모습인 개개의 작품 또는 그 집합보다 문학을 이루는 본질에 대하여 주목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문학 일반이라는 총체적인 대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속성(屬性, attribute)은 ‘사물(事物)이나 현상(現象)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을 가리키므로 ‘그것이 없이는 그 사상(事象)을 생각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이 된다. 따라서 속성은 그것과 그것 아닌 것, 즉 문학(文學)과 비문학(非文學)의 구별을 가능하게 해 주며, 그것의 본질을 드러내 이해하게 해 주고, 나아가 그것의 의미를 천착할 수 있게 해 주는 성질이다.

속성 중심으로 문학을 설명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주된 것은 어원(語源)을 중심으로 그 근원적 본질을 살피는 것이다. 어원은 문학이라는 개념의 처음 모습을 보여 주므로 문학의 중핵적 속성을 살필 수 있게 해준다.

속성 중심으로 문학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문학의 요소(要素, element)나 맥락(脈絡, context)을 분석(分析)해 보이는 방법이 있다.

시를 시답게 하는 요소로 울격이나 이미지를 설명한다든지, 이야기가 갖추어야 할 요소로 인물, 사건, 플롯 등을 풀이하는 것은 요소분석에 해당한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그것 없이는 그 문학이 성립하지 않는 성질을 알게 해 준다는 점에서 문학을 속성 중심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전체는 부분들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문학의 요소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문학이라는 전체상을 그리는 데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러한 논지에서 보면 수필은 잘 짜여진 일정한 구조를 가진, 구조 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속성을 지닌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읽기·쓰기의 통합교

육 설계에 이러한 특징을 잘 활용하면 각 활동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밖에 속성중심의 측면에서 수필을 재재로 하는 한국어교육을 보면 수필은 재미있고 독특한 어휘표현, 관용어 표현 등을 배우거나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 학습자를 고급학습자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활동 중심 문학관

활동 중심의 문학관이란 문학을 설명하는 중점을 인간의 활동(活動)이라는 특성에 두는 관점이다. 실체 중심이나 속성 중심과는 달리 문학은 어떻게 활동함으로써 성취되며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를 살핌으로써 문학의 특성을 설명하는 관점이다.

활동은 ‘움직임, 즉 행위’를 뜻하지만 단순한 움직임을 뜻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벌이는 행위’라는 뜻을 함축한다. 따라서 문학을 활동으로 보게 되면 그 의도와 행위의 방법 또는 과정의 특성이 중시된다.

문학을 ‘사상·감정을 상상력을 통하여 언어로 나타내는 예술’로 설명하는 정의(定義)의 방식은 문학을 활동으로 인식하게 해 주는 설명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문학이 예술이라는 것은 그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언어로 나타내는’이라는 설명은 문학이 언어활동 가운데 하나임을 말해 준다. 또 그 언어활동을 ‘상상력을 통’하는 활동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문학이 창조를 본질로 하는 활동임을 함축적으로 말해 준다.

문학을 활동으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문학의 ‘이해와 감상’이라는 말도 이해라는 수렴적 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표현 행위를 발산적 활동으로 인식함으로써 글쓰기를 강조하게 된다. 이해하기, 감상하기, 표현하기 등의 행위적 개념이 들어있는 표현들은 문학을 활동으로 인식하는데서 도출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의 특성을 한국어교육에 접목한다면 읽고 쓰기 좋은 글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읽기 활동을 통해 내용 이해, 어휘나 문법의 습득, 모르는 표현이나 문장도 앞뒤 정황으로 예상하기, 작가의 심경, 작품의 배경이나 상황 등을 추론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쓰기 활동을 통해 비슷한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견해나 인식을 표현하기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파악이 어렵지 않아 외국인이 접근하기 비교적 쉬운 글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하나의 기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이 연계 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제재를 선정하는 것이 교수-학습 방안을 고안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제 3 절 한국어교육에서의 수필 양식의 유용성

1. 한국어교육 제재로서의 수필의 이점

이혜인(2005)은 수필의 이해와 교육을 위한 출발을 수필의 정체성 확인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문학의 범주가 ‘시, 소설, 희곡, 수필’임을 본다면 수필이 여타 문학 장르와 대등하게 문학의 한 양식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학의 장르 체계 속에서 수필이 차지하는 위치는 분명하면서도 그 특성을 규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문학론에서나 문학 교육론에서의 수필의 위상은 다소 모호한데 실제로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쓰는 글, 생활문 혹은 실용문의 한 종류’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필을 가리켜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필을 설명하는 이론의 개발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필의 문학성 또한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수필에 대한 정진권(1993)의 논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필이 여타 생활문, 실용문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문학성’에 있다.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쓴 글이 아니다. 그것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술의 측면에서는

나의 입장에서, 내가 읽은 것, 보고 들은 것을 삽화적으로 나열하고, 거기에서 삶에 대한 어떤 태도를 찾아내 표명한다. 어떤 태도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철학에 가까워지지만, 내가 읽고, 보고, 들은 것을 삽화적으로 나열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문학의 하나인 소설에 가까워진다.

이성지(2007)는 한국어교육에서의 수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수필은 작가가 허구화되지 않고 느낀 경험을 토대로 자기 생활을 구체적 일상어로 그려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가 사용된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문학 작품에 접근할 수 있다.

둘째, 수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상상력이나 광경이라기보다는 사실에 가깝기 때문에 일상적인 소재로 허구가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자기를 나타내며 작가가 직접적으로 독자에게 서술하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자는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다.

셋째, 수필에는 작가의 한국적인 정서와 한국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담겨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작품을 통해서 한국인의 생각과 정서, 한국 문화를 함축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학 수양도 함양시킬 수 있으며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내면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김보경(2002)은 작가는 대상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하는 작업을 거쳐 수필을 쓰고 학습자가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기본적 단계라고 언급했다. 또, 수필이 의미 발견의 측면을 거치는데 이 점 또한 문학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단계적 교육을 하는데 있어 이점이 된다고 했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수필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4) 이은숙(2002), 『중국에서의 한국어문학 교육의 문제와 전망』, 월인, p.326 재인용.

- ① 다른 장르에 비해 어휘나 문장이 일반적이고 평이한 작품이 많아 외국인 학습자가 접근하기에 수월하다.
- ② 일상 경험이나 생각이나 혹은 사물을 소재로 하며 보편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쓰여 졌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에 유리하다.
- ③ 분량이 적은 편이어서 전문을 제재로 제시하기에 좋다.
- ④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시나 소설등과 같이 함축적이지 않아 내용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적다.
- ⑤ 한국어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 관용적이고 해학적인 표현을 사용한 작품을 수업 제재로 활용할 경우 학습자가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또한 학습동기를 고무시킬 수 있다.
- ⑥ 매우 평범한 사물이나 일상의 소소한 사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새로운 관점에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 ⑦ 수필은 대상의 발견, 의미부여, 유기적 표현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는 짜여진 구조적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구조를 파악해가며 읽는 훈련을 통해서 추후에 형식에 맞는 쓰기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읽기·쓰기 활동을 통합하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⑧ 문화적인 측면이 문맥이나 상황 하에 자연스럽게 묘사 혹은 서술되어 있어 문화면의 학습이 절실한 외국인 학습자에게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맞는 수필 활용 수업을 한다면 한국어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우호적인 학습자들에게는 물론 실용적인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도 유용한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한국어 교육 제재로서의 수필 텍스트 활용 목적

국내외 교육기관의 언어교육기관을 거쳐 국내의 대학 혹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수 목적을 지닌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일상적인 의사소통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과 더불어 보고서, 연구과제 등을 해결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과제들은 우선 현상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의미를 찾아내어 구조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글쓰기 혹은 논리적인 글쓰기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수필은 대상의 의미를 발견하는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문학 감상의 기본적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문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수필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갈래의 소재보다 쉽게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으로 나아 갈 수 있는 장르이다.⁵⁾ 수필은 대상을 의식, 발견→ 의미를 부여→ 재해석, 구조화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서술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특수목적의 글쓰기와 유사한 과정이며 적절한 수필 텍스트를 통한 읽기·쓰기 훈련으로 학습자의 과제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은 한국어로 자신을 표현하거나 타인과 친교적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작용으로서의 글쓰기에도 수필을 제재로 하는 읽기·쓰기 학습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필에는 필자의 개성 있는 문체로 쓰인 재미있는 표현이 풍부하고, 문화적 요소가 들어있는 문화언어 또한 포함되어 친교적 활동에도 좋을 것이다.

5) 김지은(2009), 「‘자아 바라보기’로서의 수필 쓰기 교육 방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5.

제 3 장 수필 텍스트를 활용한 읽기·쓰기 교수-학습

제 1 절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읽기·쓰기 통합 교수-학습 전략

근본적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은 서로 구분되어 사용될 수 없다. 일상생활에서는 그 기능들이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사용된다. 교육 현장에서 이것을 따로 구분하여 다루는 것은 교수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대신 현실의 언어생활과 동떨어진 교수-학습 형태를 양산할 수도 있다. 언어는 실제적인 사용으로 그 기능이 신장되기 때문에 각 언어 기능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통합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읽기와 쓰기는 통합의 핵심을 이루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여 지도하였을 경우 읽기와 쓰기의 두 가지 기능은 각각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지도한 것을 합한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읽기와 쓰기는 인지적 사고 과정이며 언어 처리 과정과 언어 처리 단위가 유사하며, 두 기능 모두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또한 의사소통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⁶⁾

수필 작품 읽기를 통해서 한국어 독해 능력의 신장이라는 언어적 목표 달성 말고도 문화적 및 기타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앞에 논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읽기라는 활동은 읽은 후 쓰기활동을 완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읽기는 쓰기 활동의 내용, 구성면에 큰 영향을 준다.

본장에서는 ‘읽기를 통한 쓰기 활동’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수-학습의 방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읽기 지도 원리와 방법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읽기 지도 전략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또 쓰기 단계를 통해 읽기 활동을 바탕으로 한 쓰기 활동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겠다.

6) 연명흠(2003), 「사고력 향상을 위한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교수-학습 활동 연구」, 흥익대학교 교육대학원 p.54

1. 읽기 및 쓰기 전략

1) 읽기 원리 및 전략

읽기 교육의 원리, 실제 등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읽기 지도를 위한 전략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H. Douglas Brown(2008)은 다음과 같이 읽기 교육의 원리를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읽기 전략들은 수필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상호작용적인 교육과정에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읽기 기술 지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도록 하라.

자신의 모국어로 읽고 쓸 줄 아는 ESL 학생들은 가끔 읽기 기능을 배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하도록 방치된다. 우리는 흔히 확장형 읽기 기회를 넉넉히 제공하여 주면 학생들이 그것을 흡수하기만 하여도 읽기를 잘 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읽기 기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시간을 제한하여 뛰어 읽기, 대강 읽기 등의 활동은 할 수 있으나, 학습자의 수준이 고급수준이라는 이유로 묵독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단별로 끊어 읽어 가며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준다거나 읽기 활동 자체에 게임의 요소를 가미시키는 등의 읽기 기술 지도는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내적으로 동기를 유발하는 기법을 사용하라.

교사는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관련성 있는 읽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수업의 내용에서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실제 생활과 관련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고 종합목표와 관련이 있는 읽기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널리 활용되는 내적 동기 유발 읽기 접근방법은 언어 체험 접근법

(Language Experience Approach: LEA)⁷⁾이다. 내적 동기를 향상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정기적인 교사 주도적 평가와 자기 평가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읽기 과정을 평가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다) 텍스트를 선정할 때는 진정성과 가독성의 균형을 맞추어라.

진정성 있는 언어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명백한 진리이다. 그러나 읽기지도에서, 약간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 가지는 소위 “단순화된 텍스트” 즉, 원래는 진정성이 있었지만 학습자의 언어 능숙도 수준에 맞추어 편집되어버린 텍스트를 권장할 만한가하는 문제이다.

읽기 전략의 하나인 ‘진정성’은 이것이 학습자에게 어휘나 문법적의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제재인가? 내용은 한국어 학습에 유익한 것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가독성’은 이러한 물음과 더불어 그 제재를 읽어 볼 언어적 수준이 되는가? 단순하고 난이도가 적절한 것인가? 등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성”이 무엇인지 자문해보고, 그 다음에 소위 단순화된 텍스트가 원문보다 정말로 더 단순한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때로는 단순화된 텍스트가 자연스런 읽여성을 지나치게 제거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히나 문학작품의 경우 자칫 원문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감상의 맛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의 언어수준을 고려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원문의 자연스런 문맥, 유머, 기지 및 기타 매력적인 특징들을 유지하며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읽기 교육 실제의 다양한 방안

정기철(2000)은 읽기 교육의 실제와 관련한 다양하고 풍부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수필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이 접근법에서는 학생들 자신이 읽기 재료를 제작한다. 읽기 재료를 선정할 때 학습자들이 이 선택권을 부여받는 다른 접근법들도 어느 정도는 내적인 동기 유발을 제공한다. 세심하게 순서를 매긴 읽기 자료들과 성공지향적인 교수 책략들은 추가적으로 읽기 과정에 내적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게 만든다.

아울러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필은 대개 일정한 형식으로 서술되나 글마다 그 구성의 표현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간단히 정의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고급 수준의 외국인 학습자로 선정한 만큼 전개식 구성 방식에 한정하여 다루어 보겠다.⁸⁾

(가) 구성

구성이란 글에 통일적인 맥락을 부여하는 순서라고 할 수 있다. 부분이나 요소들이 결합하여 이루는 유기체적인 통일체계 즉 개별적 부분들의 배열이나 사건 서술의 순서를 말한다. 또한 소재, 소재와 관련된 내용을 펼치는 외형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다.

전개식 구성에는 사건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소재를 배열하는 시간적 구성과 일정한 공간을 동적인 관점에서 보아 공간의 이동을 따라 소재를 배열하는 공간적 구성, 물리적 현상이나 법칙 등을 과정과 순서에 따른 물리적 구성이 있다.

시간적 구성에는 ‘과거 → 현재 → (미래)’와 같은 순행적 구성이 있고 이와 반대로 ‘현재 → 과거’와 같이 시간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순행적 구성이 있다. 또 ‘현재 → 과거 → 현재 → 과거’ 등과 같이 시간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혼합식 구성이 있고, ‘현재 → 상상 → 과거’와 같이 상상의 시간이 개입되는 연합식 구성이 있다.

시간적 구성은 시간 순서에 따라 소재를 배열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행기, 체험기, 회의록 등은 대개 이 구성법을 쓴다. 하지만 강렬한 인상이나 흥미를 주기는 어렵다. 글을 읽을 때 전체 흐름이 변화하는 기복에서 재미를 느끼는 법인데,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놓으면 그러한 재미를 느낄 수 없다.

공간적 구성은 공간의 이동 순서에 따라, 공간 속에서의 상황을 기술하는 구성법이다. 이 구성법은 공간 속에 존재하는 부분들의 분포, 형태, 체계 등을 기록하는 데 적합하므로 생물의 형태, 자연의 지세, 풍경 묘사, 또

8) 정기철(2000), 『읽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역락, P.334-374.

는 탐방기나 탐사 보고서를 쓰는데 자주 사용되는 구성법이다.

물리적 구성법은 물리적인 현상이나 기계적인 원리 등을 일어나는 순서대로 쓰는 구성법이다. 가령, 로봇을 조립하는 방법이라든지 라면을 끓이는 법, 컴퓨터를 설치하는 순서 등이 이 구성법에 해당한다. 시간이나 공간의 전개 순서가 아니라 행위나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 순서 등을 기준으로 하는 구성법이다.

(나) 핵심어

핵심어(keyword)란 문장이나 문단의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낱말을 의미한다. 핵심어 찾기를 하는 목적은 글의 중심 내용을 찾기 위한 것이지만, 이 핵심어 찾기를 통해서 주요한 내용을 구조화하고 잘 기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글의 중요한 내용, 정보 등을 찾고 그것을 적음으로써 그 내용이나 정보가 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잘 기억함으로 해서 다음 글 읽기에서 필요한 내용, 정보를 잘 회상(recall)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어 찾기는 글 읽기에서 중심 생각을 찾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듣거나 본 내용, 정보 등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흔한 예로 기자들이 기사를 채록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다 적을 수 없으므로 중요한 내용만을 간추려 적기 위해서 핵심어 적기를 한다. 또는 전화를 하거나 받으면서 상대방이 한 이야기나 자신이 꼭 해야 할 말을 강조하기 위해 전화기 옆의 메모지에 낱말들을 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데 이 때 메모지에 쓰는 낱말이 ‘핵심어’이고 이러한 행동이 ‘핵심어 찾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핵심어 찾기는 글 읽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듣거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빠짐없이 전달하고 강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활동이다.

문장이나 문단에서 무엇이 핵심어인가를 찾는 요령은 몇 가지가 있다.

① 반복되어 강조되는 낱말

- ② 문장을 해석하는 데 단서가 되는 낱말
- ③ 사용된 낱말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낱말
- ④ 문장을 다시 설명하거나 바꾸어 쓰기 위해 필요한 낱말
- ⑤ 개념을 정의할 때 피정의항의 중심이 되는 낱말

보통 서론이나 본문의 첫 번째 문단에서 그 글의 핵심이 되는 낱말의 의미를 정의하게 되는데 이 때 피정의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뜻을 나타내는 낱말을 찾는 것은 그 글의 전체 의도나 의미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핵심어를 찾는 활동이 끝나면 반드시 핵심어의 뜻을 다시 말하는 활동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한다. 핵심어 뜻을 다시 말하는 데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문장 수준의 활동이다. 즉 ‘사랑’이라는 낱말을 정의하는데 ‘아끼는’을 핵심어로 찾았다면, ‘사랑은 아끼는 마음이다’라고 문장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문단 차원의 활동으로 문단을 듣거나 읽고 핵심어를 찾은 다음 핵심어를 중심으로, 핵심어가 의미하는 것을 간단한 문장으로 다시 말하게 하는 것이다.

(다) 요약

글 읽기는 유사한 내용이나 내용의 관계, 기능에 따라 서로 묶어 나가고 묶어 나가는 과정에서 중심 생각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라면, 글 읽기의 과정은 요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유능한 글 읽는 이는 글을 읽으면서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 사이에서 끊임없이 내용을 요약한다.

요약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일반화하고 일반화한 내용을 도식(골격)화하여 기억을 쉽게 하여 회상을 돋운다. 그러나 미숙한 읽는 이, 초보적인 읽는 이는 대개 이러한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그 결과 글을 요약하지 못하고 따라서 기억과 회상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학습자에게 곧바로 요약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비학습적이다. 따라서 앞에서 거쳐 온 과정들을 단계적으로 활동하여 요약하기에 어려움

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문단에서 중심 생각, 소주제를 파악해내는 일이 요약하기 과정의 핵심 단계라 할 수 있다.

교사는 단계마다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 중심으로 활동하게 해서 요약하기의 각 단계에 학생들이 익숙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를 쓰기와 연계하여 통합지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다. 즉 이는 수필 읽기 지도의 전략은 바로 수필 쓰기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한 성공적인 읽기 지도의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상호작용적 읽기 지도 기술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읽기 활동을 학습자에게 위임하기 보다는 학습자와 교사, 학습자와 학습자간에 상호작용적으로 읽기를 해 나가는 것이 권유된다. 수업시간에 발음을 틀리지 않고 읽게 하고 틀렸을 경우 다른 사람이 이어서 읽는 게임식 방법, 읽은 내용을 구두 혹은 확인 학습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도출하도록 노력한다.
- ② 진정성과 가독성을 지닌 작품을 선정한다. 타당한 근거로 선정된 작품은 학생의 동기유발을 돋고 학습욕구를 자극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작품 선정의 기준은 2장의 세 가지 문학관에서 언급한 요소를 지닌 작품으로 가정한다.
- ③ 글 구성의 종류를 파악하며 읽도록 한다. 수필의 경우 일정한 구조를 가지는데 반드시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글 전체와 각 문단을 통해 구성 방식을 탐색해 보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 ④ 핵심어를 찾도록 한다. 핵심어를 찾은 다음에는 핵심어의 뜻을 다시 말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문장 수준에서 정의하는 방식과 문단 차원에서 읽거나 듣고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

⑤ 요약하며 읽도록 한다. 유능한 글 읽는 이는 글을 읽는 도중에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 사이의 내용을 요약하지만 초보적인 읽는 이에게 곧바로 요약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비학습적이다. 문단에서 중심 생각, 소주제를 파악해내는 일이 요약하기 과정의 핵심 단계이며 교사가 이를 단계마다 시범을 보이는 것이 좋다.

2. 쓰기 단계 및 전략

김연례(2010)은 국어 교사용 지도서 3-1(2008)에서 생각꺼내기 → 생각묶기 → 초고쓰기 → 다듬기→ 작품화하기의 5 단계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리 하였다. 먼저 쓰기 전 단계 → 쓰기 중 단계 → 쓴 후 단계로 나눈 다음 쓰기 중 단계를 더 세분화 하여 생각 떠올리기 → 생각엮기 → 초고쓰기 → 고쳐쓰기 → 출판하기의 5 단계로 쓰기 단계를 정리하였다. 성인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쓰기가 이루어지는 쓰기 중 단계에 비중을 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정하고 김연례(2010)의 기준을 인용하기로 한다.

1) 쓰기 전 단계

쓰기 전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생들에게 교수 학습 목표와 쓰기 과제가 무엇인지를 인식시킨다. 쓰기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쓰기 의욕을 자극하고 부담 없이 글을 쓸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들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안정시킨 다음 학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편안함과 자유롭게 쓰고 싶어 하는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잠시 생각하게 하

기, 메모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편안하고 허용적인 쓰기 분위기가 되면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쓸 수 있는 자신감을 준다.

2) 쓰기 중 단계

쓰기 중 단계에는 경험의 활성화를 통하여 생각 떠올리기, 생각엮기 과정으로 생각을 떠올리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찾아내는 구체적인 생각들을 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쓰기를 하기 전 단계로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시작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과제와 어울리는 단어나 생각 떠올리기, 먼저 떠올린 사람이 발표하기, 차례대로 발표하기(3~5명), 브레인스토밍, 생각그물(생각엮기)의 시범보이기 등이나 전략 지도가 있은 후 학생이 쓰기를 시작하고 협의를 해가며 글을 다듬어 간다. 교사는 쓰기 과정에서 협의나 질문을 통해 피드백이나 비계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글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 생각 떠올리기

이 단계는 글쓰기의 준비 단계로 교사는 학습자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간단한 전략을 가르치고 학습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만큼 학습자의 경험을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면 아이디어가 생성되지 않아 쓰기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교사는 다양한 시범글이나 글감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글을 쓰는데 대한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고 쓰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사용하는 전략으로는 브레인스토밍이나 생각그물(mind mapping), 열거하기, 비디오 보여주기, 협의하기, 어떤 주제에 대하여 보고 느낀 것 말하기, 그림 그리기, 연상하기, 이야기 들려주기 등 학습자들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많은 학습자가 공감할 수 있는 친근한 경험을 소재로 사용한다.

(나) 생각엮기

생각 떠올리기에서 자유롭게 연상한 쓰기 아이디어를 고르고 조직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아이디어를 묶는 방법으로 다발 묶기나 마인드맵, 개요짜기 등을 설명하고 시범보일 수 있다. 이 때 학습자들은 내용, 목적, 청자 등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하므로 아이디어들을 구조화시켜서 하나의 조직으로 인식하게 된다.

생각엮기 전략으로는 개요짜기, 다발묶기(clustering) 등이 있다. 개요짜기는 전통적인 조직 방법입니다. 다발짓기와 개요짜기는 정리, 분류, 체계화에 있다. 중심활동은 생각 그물을 보고 정리하는 것이지만 정보의 추가와 삭제는 생각묶기 단계에서도 일어난다.

그런데 개요짜기의 경우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의 흐름을 묶어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다발짓기는 정보의 공간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즉, 공간은 학습자의 심리를 보다 편안하게 해주므로 정보를 빠른 속도로 조직할 수 있으며 정보의 추가 삭제가 용이하다. 이 묶기는 글감을 주제나 소재 별로 체계적으로 분리하는 단계로 수렴적 사고 과정이다. 개요 짜기는 열개 짜기라고 하는데 서술구조, 순서 구조, 비교 대조 구조, 원인 결과 구조, 문제 해결 구조, 이야기 글의 개요 구조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마인드맵은 다발묶기와는 다르게 사고의 범주를 확장하여 자세히 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능력이나 수준에 따라 마인드맵이나 다발묶기를 취사선택할 수 있겠다.

3) 쓰기 단계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생각 떠올리기와 발산된 아이디어를 고르고 조직하는 생각엮기 단계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문자 언어로 표현하는 쓰기 단계이다. 쓰기 단계는 초고쓰기와 고쳐쓰기가 있는데 초고쓰기 단계는 완결된 작문을 목표로 하지 않으므로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교사나 동료 협의를 통하여 고쳐 쓰고 다듬는 활동이 반복 순환된다. 초고쓰기에 지나치

게 힘을 들이지 않도록 시간을 제한해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초고쓰기

초고쓰기는 생각 떠올리기와 생각 엮기 단계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문자 언어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즉 생각을 꺼내고 묶은 초고를 쓰는 단계이다. 초고쓰기는 앞으로 고쳐 쓸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띄어쓰기, 맞춤법, 문장부호나 글씨체 등의 형식적인 면은 무시하고 내용에만 집중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빠른 속도로 적어나가도록 한다. 이때는 자기가 생각한 글감을 줄거리 중심으로 거침없이 써 나가며 내용 구성과 조직에 집중하여 글을 쓰도록 한다. 초고를 쓸 때는 앞으로 고쳐쓰기하는 단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초고쓰기에서는 얼른 쓰기(또는 빨리 쓰기)나 말로 쓰기 등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을 쓰지 않도록 시간을 제한해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고쳐쓰기

이 단계는 초고를 읽으며 내용을 넣고 빼고 다듬고 편집하는 모든 과정이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퇴고나 수정 작업에 들어가기 전 자신이 쓴 글을 동료들과 돌려 읽으며 내용의 퇴고에 도움을 받는다. 동료들은 독자가 되어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피드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작가인 학습자는 동료들의 조언을 받아 글을 다시 고쳐 쓰며 자신의 작품을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 교사는 내용의 수정에 대화와 질문을 통해 비계를 제공할 수 있고 실물화상기 등으로 학생의 글에서 맞춤법이나 문단쓰기, 띄어쓰기, 문장 부호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을 시범 보일 수 있다. 돌려 읽기를 할 때는 지나치게 평가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협의를 할 수 있게 협조적인 분위기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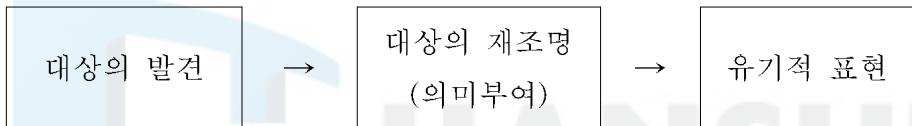
4) 쓰기 후 단계

쓴 후의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완성한 글을 출판하는 과정으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작가로서의 경험을 갖게 해 주고 서로의 글을 공유하며 평가하도록 한다.

출판하기는 학습자들이 쓴 글을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작품을 동료, 교사 등의 실제적인 독자와 공유하는 단계이다. 다시 말해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 평가의 자료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은 수필 쓰기 활동을 위한 생성적 사고의 단계를 도식화 한 것이며, 쓰기 활동의 교수 학습 모형인 <표 2>에 접목해 보았다.

<표 1> 수필 쓰기 활동을 위한 생성적 사고의 단계



<표 2> 쓰기 활동의 교수 학습 모형

쓰기 전 단계 (대상의 발견)	· 마음 가라앉히고 쓰기 활동을 할 준비하기 · 학습 동기 유발 · 교수학습 목표 확인(쓰기 과제 확인)	
	교사와 학생의 활동	
쓰기 중 단계 (대상의 재조명- 의미부여)	생각떠올리기	브레인스토밍, 경험 활성화, 아이디어 생성, 의견 교류 및 협의
	생각엮기	개요짜기, 다발짓기, 교사가 말로 쓰기

		시범 보이기, 우수작품 들려주기, 장소, 시간, 사건의 순서대로 배열하기, 인상적인 내용 말로 쓰기
쓰기 단계 (유기적 표현)	초고쓰기	열른 쓰기, 교사나 동료학습자의 비계지원(개인적 조언 등)
	고쳐쓰기	삽입, 삭제, 글 다듬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넣어 글 완성하기
쓰기 후 단계	출판하기	우수작품 읽어주기

2. 읽기·쓰기 연계 방안

쓰기는 읽기의 완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읽기와 쓰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연계하면 각 단계 활동에 상승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읽기·쓰기 활동을 할 때 구성적, 내용적, 표현적인 면으로 나누어 그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구성적인 면

텍스트를 읽을 때 교사는 문단별로 끊어 읽기를 하게하고 한 후 핵심어를 찾고, 한 두 문장으로 요약하기 활동을 하겠다고 예고한다. 약간의 시간을 주고 질문을 하면 학생이 대답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적 읽기를 위한 방안으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생각할 시간을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끝까지 다 읽은 후에는 학습자가 글의 전체적인 구성을 파악하여 줄거리를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바로 말

하거나 쓰게 하는 것보다는 교사가 제작한 빈 칸이 있는 구성흐름도 등을 화면 자료로 보여주거나, 구두로 유도 질문을 한 후 학생이 답한 것을 토대로 정리해 주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사용으로 학습자가 부담을 덜 느끼며 학습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읽기에 이어 쓰기의 활동에서 교사는 수필 쓰기의 구성 방식을 예를 들어 설명해 준다. 가령 시간의 흐름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지, 의식의 흐름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지,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형태를 취할 것인지 등이 그것이다. 학습자는 이를 메모하거나 잘 기억해 두었다가 쓰기 활동 시 자신의 글에 사용할 방식을 선택한다. 이때 형식에만 너무 치우쳐 다른 면에 소홀해 지지 않도록 교사의 조언이 필요하다.

2) 내용적인 면

구성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전체, 작게는 문단이나 문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읽기 활동에서는 새 단어와 문법적 요소를 설명하거나 학생이 스스로 찾게 하는 것들이 이루어 질 것이다. 대상자를 고급 학습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 교수 방법의 참신성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겠다. 다만 수필의 특성상 개성있는 문체의 문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언급해 주어 내용을 파악하는데 혼돈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쓰기 활동에서 이 부분은 사실 학습자의 역할이 크다. 교사는 학습자가 쓸 내용을 잘 생성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을 뿐이다. 학습자가 유의미한 경험을 이야기 소재로 이끌어 낼 수 있게 자극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질문을 하거나 동료 학습자와의 토론에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글감 찾기를 어려워하는 학생에게는 읽기 텍스트와 유사한 것을 토대로 하는 모방쓰기를 제안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토론을 제안하기 전에 생각그물, 다발짓기 등을 그림이나 표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제안한다. 교사의 시범을 보고 모방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의미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3) 표현적인 면

국어교육의 읽기·쓰기와 한국어교육의 그것이 가장 구별되는 부분은 바로 표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읽기 활동에서는 새로운 어휘에 대한 학습과 더불어 관용적 표현과 문화언어⁹⁾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학습자가 표면적으로 이해했더라도 맥락 안에서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 교사가 이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표현하는 것 즉 쓰는 것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에게도 쉽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 화자에게 개성 있는 문체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비문이 아닌 문장으로 서술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 지도한다. 단, 의인화나 역설적 표현 등을 예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시도해 보도록 하는 것도 학습자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2 절 수필 텍스트 활용 교육의 실제

1. 언어 교육적 문학관의 층위에 따른 텍스트 선정

수필 텍스트 선정에는 읽기·쓰기 전략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수필에 녹아있는 실체 중심, 속성중심, 활동 중심의 문학적 특징을 최대한 살린 작품을 각각 선정하여 제시한 다음 읽기 지도 전략과 쓰기 활동 과정의 방법을 실제 수업에 활용하는 학습지도 방안을 고안해 보고자 한다.

9) 본고에서의 문화언어는 표면적인 의미만으로는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없으며 문화적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만 가능한 어휘나 표현 등을 의미한다. 예) ‘시집살이를 일컬어 귀머거리 삼년, 병어리 삼년이라고 한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들해졌다. 등.

1) 실체 중심의 교수-학습

(1) 작품의 예 1

우리의 결혼 풍속도/조성연

결혼식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축복받는 그런 의식이다. 그런 결혼식이 언제부터인가 아주 우습게 변하고 있다.

우선 결혼식장에 들어서면 한 곳에 접수구가 여러 군데 있어 좌우를 살피며 두리번거리는 일부터 하게 되어 해매게 된다. 로비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담소를 하거나 큰 소리로 떠든다. 두리번거리고 서서 어느 쪽인지를 가늠하는 꼴이 꼭 촌놈이 장에 와서 뭐 볼 것 있나하고, 두리번거리는 꼴 같다.

“야, 임마 뭘 그렇게 두리번거려” 하고 누가 툭 튀어나온다. 그래서 돌아다보면 한 쪽에 아는 얼굴들이 몇 명 보이기 시작한다. “접수구가 어디야”하고 두리번거린 끝에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물어본다. “응 저쪽에 보이잖아 넌 눈도 이제 다 된 모양이다.”하고 조크까지 주면서 가리켜 준다. 양가 부모 중 초대되어 온 쪽에 인사를 한 후에 봉투를 접수구에 내밀면 신고식이 끝난다.

식장 안으로는 들어가 보지도 않고 뒤틀아 나와 친구들이 서있는 곳으로 간다. 그때서야 이 사람, 저 사람을 둘러보고 인사를 한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나도 그 대열에 합세하여 어떤 친구가 나처럼 들어오는지를 지켜보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두리번거리는 친구에게 야유를 하거나 인사를 한다. 그래서 대여섯 명이 모이면 “야, 밥 먹으러 가야지”한다. 결혼식은 시작도 안 했다. 그러면 좀 있다가 가자는 쪽과 그냥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자는 쪽이 실랑이가 조금 있는 듯 하다가 이내 식당으로 가서 차려 놓은 자리에 앉는다.

별씨 우리처럼 와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면 우리辈도 한쪽으로 몰려가서 주는 대로 먹는다. 그리고 나면 식당에서 다음 사람

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다. 그래서 예식장 옆굴 내밀기는 끝이 나고 몇몇 친구와 근처 다방으로 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말장난을 한다. 이렇게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내외이다. 이런 옆굴 내밀기를 위해 때로는 비행기로 찾아봐야 하는 경우도 있고, 기차, 고속버스, 자가용으로, 혹은 지하철을 몇 시간씩 타고 예식장에 참석한다.

이것이 우리 전통 혼례가 사라진 이후에 변화된 결혼식 풍경이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우습게 변했다. 결혼식에 가서 밥만 한 그릇 벅고 온 꼴이다. 그렇다면 아무 데서나 먹지, 꼭 눈도장 찍고 먹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더 심한 경우는 경조금을 온라인으로 부쳐주는 그런 친구도 있다. 구태여 교통도 나쁜데 몇 시간씩 걸려서 참석해 식장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밥 먹고 올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게 말이 되긴 되는 것 같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결혼식을 보면, 그냥 그날은 동네 잔치다.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잔치국수 먹고 즐기며, 하루를 동네 사람들 모두가 모이고, 강아지까지 나와 함께 하는 축제로 끝난다. 신부집 마당에 차일이 쳐지고, 육례 상이 차려진다. 육례상에는 송죽, 촛대, 밤, 대추, 닭, 술병이 올려지고 혼례가 시작된다.

신랑이 북향을 하고 앉았다가 상위에 나무 기러기가 놓여지면 네 번 절을 한다. 그리고 나면 신부의 어머니가 기러기를 치마로 싸서 신부가 앉아 있는 방으로 던진다. 나무 기러기가 누우면 첫 딸이고, 서면 아들이라고 한다. 신랑이 대례상 동쪽에서면 신부가 서쪽에 마주서고 절을 교환한다. 이어서 신랑, 신부가 합환주를 마시며 예식이 끝난다.

신방으로 들어와 병풍을 치고, 각자 따로 앉아 옷을 갈아입고, 밤이 되면 신방을 차린다. 신랑은 신부의 족두리를 풀고, 잠자리에 들면서 촛불을 입으로 끄면 복이 날아간다고 하여 반드시 옷깃으로 꺼야 한다. 이때 신방을 지키는 쪽과 옆보는 쪽의 심한 장난이 시작된다.

“야, 대식아 너 장가 처음 가보냐, 한 번 해보고서 뭘 그렇게 꾸물대”하고 야자를 놓는다. 그러면 다른 한편에서는 “본래, 쟤가 내숭이 좀 심하잖아”라고 응수를 하면 방안에서는 신랑이 옷깃으로 촛불 끄기에 열

심이다. 신랑은 그게 말처럼 잘 안되니까 땀을 흘리고, 촛불 끄기에 여념이 없다. “어, 신부가 울잖아, 빨리 좀 하지, 그것도 못하는 신랑이 어디 아들은 빨리 낳겠어.” 하고 야유를 보낸다.

그러면 같이 있던 신랑 어머니가 한 마디 한다. “김천 댁, 그런 소리 마시유, 재수 녀석 장가가던 날, 촛불 입으로 빨리 불어 끄더니, 어디 아들 낳시유? 팬찮다. 아들아, 천천히 끄거라 밤이 길다.”하고 이건 야유인지 격려인지 이상하게 한 마디 한다. 그러면 동네 아낙들이 한 바탕 웃고 시끌시끌해진다. 신랑이 불을 끌 때까지 야유가 계속된다. 촛불이 꺼지면 신랑신부의 신방 지키기가 끝나고 행복한 첫 날밤을 갖게 된다.

<중략>

동네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고, 신랑신부를 축하해 준다. 셋째날 가마 타고 시댁으로 가는 날도 장난이 계속된다. 신부가 앓은 방석 밑에 목화씨와 속을 깔기도 하고, 신랑이 넘어지도록 둇자리 밑에 도토리나 밤 같은 것을 숨겨 놓기도 한다. 신랑 집으로 떠나는 신혼부부를 축복해 주면서 웃고 즐긴다. 신랑 집에서도 시부모와 일가친척들에게 음식을 차려 놓고 큰절을 하고, 술잔을 올리는 폐백을 드린다. 이런 절차로 결혼식이 끝난다.

그런데 요즘 도회지에서 하는 예식은 그런 것을 다 없애고, 폐백만 드리고 있어 겨우 명백을 유지한다. 폐백도 그저 술 한잔 올리고, 돈 봉투 챙기는 행사 같아서 영 재미가 없다. 더구나 하례객으로 왔던 사람들은 참여 기회가 없어 점점 더 삭막해지고, 그야말로 밥 먹으러 온 사람처럼 식사나 하고,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오늘의 결혼식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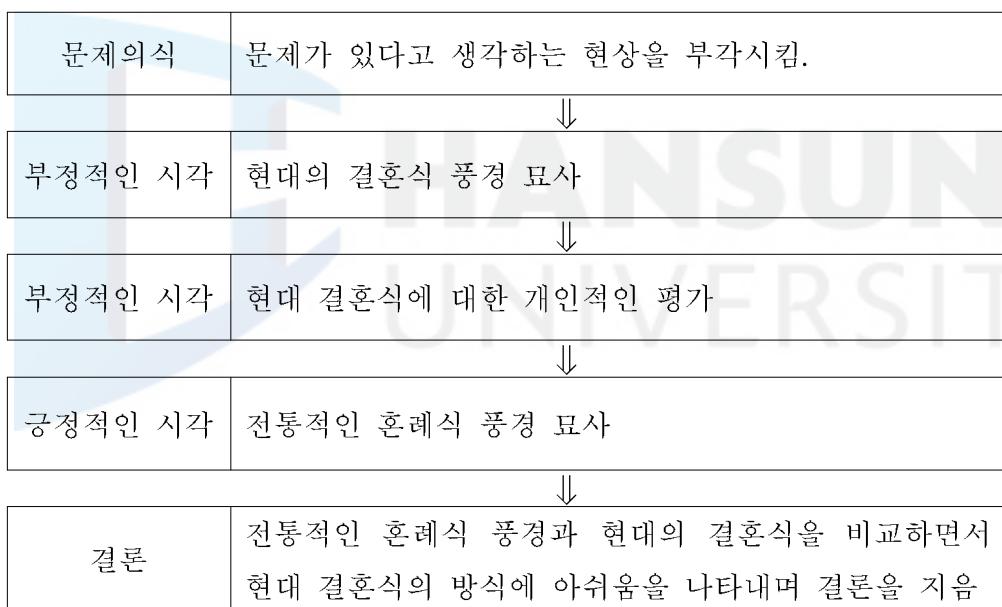
위 수필은 구조적으로는 비교의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내용적으로는 결혼이라는 문화적 정보를 담고 있는 문학 텍스트이다. 학습자가 목표 언어로 된 문학작품을 통해 문화 지식을 획득 하는 것은 첫째, 성취감을 주고 둘째, 수동적으로 보고, 듣는 매체나 구두의 정보 보다 더 파지가 잘 될

것이며 셋째, 자연스럽고 경제적으로 문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또 이와 같은 문화를 담은 수필 텍스트 활용 수업에서는 학습자 국가의 생활 문화를 말하기, 쓰기 활동 등을 통해 소개 할 수 있다. 단순히 읽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결혼식 풍경에 관한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먼저 현대 결혼식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한 후 과거의 결혼식을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방식으로 서술된다. 우리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결혼이라는 일상적인 소재를 작가의 견해로 의미를 부여하여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한 시각의 변화과정을 표로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작가의 부정적-긍정적인 시각의 변화 과정



(2) 작품의 예 2

마지막 스승의 날/ 김재희

내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 살았던 곳은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그 시대에는 꿈은 있으나 그 꿈을 펼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그런 청년 한 사람을 가르치신 적이 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우리 집을 찾아와 아버지께 글을 배웠다. 어찌나 열심히 배우던지 그것이 기특하여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아버지께서 그가 오는 주말을 더 기다리셨다. 그래서 황금 같은 주말에도 어딜 가시지 못했다고 한다.

5년 정도 긴 세월을 꾸준히 다니면서 글을 배우던 그 청년을 공무원시험에 합격해 당당히 국가 공무원이 되었고, 어느덧 반백이 된 지금은 어느 소도시의 선거 관리 사무국장으로 계신다.

아버지가 그 시골 학교를 떠난 후로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났건만, 그분은 해마다 스승의 날을 쟁기셨다.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작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을 보내 주시기도 하셨다. 아버지께서 정년퇴임을 하신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러 이젠 아주 먼 옛날이야기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분이 아버지의 전 생애를 대변해 주시는 증인처럼 느껴진다.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그분이 다녀가셨거나 선물을 보냈다는 말씀을 하시며 흐뭇해하는 아버지셨다. 나는 두 분의 돈독한 스승과 제자 관계를 보면서 스승과 제자를 생각해 보곤 한다.

요즘에는 스승과 제자라는 아름다운 인연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별 탈 없이 무사히 한 해를 마치나 그게 걱정이라는 선생님들이 많단다.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가까이 있는 남편의 뜻도 그런 쪽이다. 제자의 마땅찮은 모습을 보고 야단치고 싶은 마음을 참기가 무척 힘들단다. 보다 못해 가벼운 꾸지람이라도 하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든다고 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 기가 막혀 당장 그만두고 싶은 때가 있다고 했다. 꼭 승진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더 이상 학

생들을 다루기가 힘들어서 담임을 맡아야 하는 평교사의 길에 회의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런 현실에 견주어 볼 때, 나의 아버지와 그분 같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참으로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해마다 스승의 날에는 그 이야기로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곤 한다.

그런데 이제 그 아름다운 인연의 끈도 끊어질 날이 머지않은 듯싶다. 그분은 아버지가 투병 중임을 모르기에 아직 찾아오시지는 않았다. 그 분이 아버지의 입원 소식을 알게 되면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시리라.

스승의 날인 오늘, 병실로 온 한 통의 전화는 나를 눈물짓게 했다. 역시 그분의 전화였다. 혹시 안 오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올해도 잊지 않고 전화를 주시어 아버지의 마지막 스승의 날을 기쁘게 해 주셨다.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나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스승의 그림자도 밝지 않는다’, ‘군사부일체(임금과 아버지와 스승의 은혜는 같다)’ 등과 같은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강조하고 그러한 덕목을 승배해 왔다. 이 글은 사제 간의 정이라는 소재를 작가의 아버지와 남편의 일화 혹은 말을 통해 제시한 후 작가의 생각을 더하여 서술함으로써 스승의 날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글이다. 그 대상자가 외국인인 만큼 한국의 스승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현대 사회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그밖에 자국의 문화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하며 읽은 후 이를 소재로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사제지간의 정을 소재로 삼아 구조적으로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형식을 띤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작가의 기대치를 먼저 서술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퇴색해 버린 현대사회의 모습을 서술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끝까지 존경과 신뢰를 보여준 아버지 제자의 훈훈한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 할 수 있다.

<표 4> 시공간의 변화와 작가의 인식 변화 과정

과거 회상	아버지와 어느 아버지 제자의 관계에 관한 일화.
↓	
현재 상황	아버지 제자의 현재 모습.
↓	
덕목의 하나인 사제지간의 의미를 고민해 봄	아버지와 아버지 제자 사이의 관계를 통해 사제지간에 관해 생각해 보는 계기 마련.
↓	
현재 상황에 대한 작가의 견해	현대의 퇴색된 사제지간의 모습.
↓	
현재 상황에 대한 작가의 견해	투병중인 현재의 아버지와 변하지 않는 아버지 제자에 대한 고마움.

2) 속성 중심의 교수-학습

(1) 작품의 예 1

진정한 문화인/ 이영남
<p>며칠 전 인근에 사는 질부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녀가 일전에 19세기 인상파 화가의 전시회에 다녀온 것이 화제로 떠올랐다. 이제까지 화집으로만 접했던 명화들을 직접 감상하고 나니 ‘비로소 안목 있는 문화적 소양을 갖추나 보다’란 뿐듯한 생각에 기분이 고조되어 그날은 새벽녘에야 설잠에 들었단다. 문경새재 아래 안온한 작은 마을에서 성장한 그녀의 문화적 갈증이 가름되며, 지</p>

난날의 내 모습이 떠올라 빙그레 웃었다.

풋내기 대학생시절, 인상파 그림에 흠뻑 빠졌던 적이 있다. 특히 빈곤 속에 정신병으로 힘들게 살다 권총 자살로 삶을 접은 네덜란드의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좋았다. 서울 명동 외서 전문 서점에서 반고흐의 생애와 그림‘을 구입해서 영어사전을 끼고 다니며 읽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미치광이가 되어도 좋으니 고흐처럼 굽고 짧게 살겠다’고 유치스런 말을 하여 ’고생스럽게 길렀더니 한심한 소리를 듣는구나‘라며 꾸중을 하셨다. 어쨌든 내 짧은 영혼은 고흐에게 사로 잡혔고, 그의 원작 그림을 보는 것과 요양 차 그가 머물렀던 남 불란서 프로방스 지방의 ’생 레미‘마을을 찾아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며 유난을 떨던 시절이 있다.

1977년 여름,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WHO)가 업무 초청을 하면서 제네바와 서울 사이에 있는 도시면 어디든 마음대로 들릴 수 있는 1년 기한의 세계일주 항공권을 보내왔다. 업무를 마친 후, 고흐의 원작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긴 나는 그의 작품을 소장한 각지의 미술관을 돌아보는 귀국 여정을 잡았다. 제네바를 떠나 뮌헨, 파리 등을 거쳐 네덜란드 암스텔담으로 간다. 암스텔담에서 대서양을 건너 뉴욕과 보스톤에 들렸다가 태평양을 횡단. 우에노를 거쳐 귀국하는 가슴이 설레는 계획이다.

암스텔담 스키폴 공항에 도착하니 아침 11시였다. 뉴욕 행 네덜란드 항공 KLM 비행기가 오후 5시에 출발하니 여섯 시간의 여유가 있어, 50분마다 운행되는 공항버스로 암스텔담 시내까지는 40분 걸리기에 고흐 미술관에서 두 시간을 보내도 4시 20분까지는 공항으로 돌아올 수 있다. 내가 타고 갈 비행기에 여행 가방을 부치고 탑승권만 챙긴 후 간편한 차림으로 버스에 올라 설레는 가슴으로 시내로 향했다.

수많은 고흐의 그림을 감상한 나는 세상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 공항행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3시 30분, 출발 시간인데 버스는 오지 않았다. 20분이 지나도 올 기미가 없다. 당황스러웠다. 매표 직원에게 물으니 이번 버스는 고장으로 결행이니 다음 것을 이용하란다. 어찌

나! 뜨거운 불기둥이 등을 훑고 지나면서 머릿속이 새 하얗게 빈다. 4시 20분 버스를 타면 5시쯤 공항에 도착할 것이고, 5시 출발인 내 비행기는 이륙할 텐데, 어떡한담……참으로 난감하다. 매표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다. KLM 본사와 공항에 전화 통화를 한 매표소 직원이 ‘오늘 안으로 대서양을 건널 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나를 안심시킨다. 미소까지 떠면서. 걱정 말라고 걱정이 안될까? 입술이 바짝 마르고 등판으로 열천, 냉천이 번갈아 흐르며 이마에는 진땀이 솟고,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고호의 명화를 보면서 영혼이 누린 호사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구나.

공항에 도착하니 5시 5분, 나를 찾는 안내 방송이 연신 드넓은 사방에 울려 퍼진다. 뉴욕 행 KLM의 이륙 준비가 되었으니 빨리 탑승하란다. 검색과 출국 수속에 줄 서서 차례 지키지 말고 우선 통과하라는 안내까지 덧붙였다. 순간 창피함도 미안함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유럽 최대 공항답게 출국 수속대에서 청사 끝에 있는 비행기 탑승구까지는 오리쯤은 될 듯 했다. ‘미안합니다’란 소리를 쉴 새 없이 쏟아내며 자동 벨트 길 위를 전력으로 달렸고,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길을 터 주었다.

땀에 흠뻑 젖어 비행기에 올랐다. 여 승무원에게 탑승권을 보이고는 숨을 헐떡거리며 매우 미안하단 말밖에 달리 무엇을 하랴! 스튜어디스가 약간 상기된 소리로 ‘우리가 기다리던 승객이 지금 무사히 탑승했습니다. 여기에 그 숙녀가 있습니다. 함께 여행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라고 안내방송을 하니 승객들이 우레 같은 환영 박수를 보낸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나는 어디론가 숨고 싶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다는 말의 의미를 확실하게 배웠던 순간이다.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대형 비행기의 출발이 나로 인해 30분 지연됐다. 부끄러워 몸을 숙이고 좌석을 찾아갔다. 옆 좌석의 은발의 노신사가 미소로 악수를 청한다. 맨 정신으로는 도저히 송구스러움을 견딜 수 없다. 비행기에서 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 대서양을 건넜다.

그토록 많은 승객이 삼십 분이나 묵묵히 기다리며 베룬 인내와 아량

을 어찌 잊을까? 품격 있는 문화인의 면모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 사건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인 동시에 큰 가르침이 되었다. 이후로 나는 기차, 비행기 등 탈 것이 자연되는 경우, 암스텔담에서 매표소, 항공사, 공항 직원이 준 도움과 수백 명의 승객들이 보여준 배려를 상기하면서 그때 진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기다린다.

흔히 음악, 미술, 문학 등에 소양이 있고 ‘문화생활을 누리는 사람을 문화인’이라 한다. 나는 ‘타인에게 배려와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보다 아름다운 문화인이란 생각을 한다.

이 텍스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었다. 이는 작가나 독자 모두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부담이 적은 서술의 방법일 것이다. 이와 같이 무형식적, 관념적 소재를 다른 작품을 통하여 우리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선행, 예의, 금기, 무례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은 수필 작품 중 가장 기본적인 구성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전개 과정을 묘사해나가는 방식의 글인 만큼 그 구성이 비교적 쉽게 파악된다. 어휘나 관용어 표현이 쉽지 않지만 구성적인 특징이 명시적이므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정한 문화인이란 무엇인지 경험을 통해 깨달은 의미를 정의하며 결론짓고 있다.

<표 5> 시간의 흐름과 사건 전개 과정에 따른 서술

일상의 인물을 통한 자극	일화를 통해 자신의 과거 경험 회상. 주변 인물의 감정이나 주변 사물이 의미있는 소 재가 됨.
↓	
과거 회상과 현재의 모습	과거 어린 시절의 우상, 꿈, 생각에 관한 서술. 어른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 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전개과정 서술	꿈을 실현했을 때의 기쁨. 하지만 비행기 시간에 늦어 매우 당황했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
깨달음	진정한 문화란 어떤 것이라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음.

(2) 작품의 예 2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 박완서

요샌 좀처럼 이런 갈망을 풀 기회가 없다. 환호가 아니라도 좋으니 속이 후련하게 박장대소라도 할 기회나마 거의 없다. 의례적인 미소 아니면 조소, 냉소, 고소가 고작이다. 이러다가 얼굴 모양까지 얄궂게 일그러질 것 같아 겁이 난다. 환호하고픈 갈망을 가장 속 시원히 볼 수 있는 기회는 뭐니뭐니해도 잘 싸우는 운동 경기를 볼 때가 아닌가 싶다. <중략>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요?” 나는 부끄럽게도 안내양에게 짜증을 부렸다. 마치 이 보잘것없는 소녀의 심술에 의해서 이 거리의 온갖 차량이 땅에 붙어 버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러나 안내양은 탄하지 않고 시들하게 말했다.

“아마 마라톤이 끝날 때가진 못 가려나 봐요.” “뭐 마라톤?” 그러니까 저 앞 고대에서 신설동으로 나오는 삼거리쯤에서 교통이 차단된 모양이고, 그 삼거리를 마라톤의 선두 주자가 달려오리라. 마라톤의 선두 주자! 생각만 해도 우울하게 죽어 있던 내 온몸의 세포가 진저리를 치면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선두 주자를 꼭 보고 싶었다. 아니 꼭 봐야만 했다.<중략>

“선두 주자가 드디어 결승점 전방 10m, 5m, 4m, 3m, 골인!” 하는 아나운서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리고 군중의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들렸다.

비로소 일등을 한 마라토너는 이미 삼거리를 지난 지가 오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 삼거리에서 골인 지점까지는 몇 킬로나 되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상당한 거리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통행이 금지 된 걸 보면 후속 주자들이 남은 모양이다. 꿀찌에 가까운 주자들이.

그러자 나는 고만 맥이 빠졌다. 나는 영광의 승리자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이지, 비참한 꿀찌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또, 차들이 부르릉대며 들먹이기 시작했다. 차들도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짜증을 내고 있었다. 다시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저 만치서 푸른 유니폼을 입은 마라토너가 나타났다. <중략>

나는 그런 표정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느꼈다. 여지껏 그렇게 정직하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그렇게 정직하게 고독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가슴이 뭉클하더니 심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20등, 30등을 초월해서 위대해 보였다. 지금 모든 환호와 영광은 우승자에게 있고, 그는 환호 없이 달릴 수 있기에 위대해 보였다. 나는 그를 위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전에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도 자기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옛날 모르겠다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쩌나, 그래서 내가 그걸 보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중략>

내 고독한 환호에 딴 사람들도 합세를 해 주었다. 푸른 마라토너 뒤에서 또 그 뒤에서 주자는 잇따랐다. 꿀찌 주자까지를 그렇게 열렬하게 성원하고 나니 손바닥이 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러나 뜻밖의 장소에서 환호하고픈 오랜 갈망을 마음껏 풀 수 있었던 내 몸은 날듯이 가벼웠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마라톤이란 매력 없는 우직한 스포츠라고밖에 생각 안 했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을 좀 더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것이 조금도 속임수가 용납 안 되는 정직한 운동이기 때문에. 또, 끝까지 달려서 골인한 꿀찌 주자도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 무서운 고통과 고독을 이긴 의지력 때문에.

작품에는 작가의 성향, 인생관이 일화를 통해 드러나 있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작가의 체험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내용 또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1등으로서의 가치와 우수함 보다는 정직하고 진실한 꼴찌의 위대함을 부각시켜 필자의 새로운 관점을 참신하게 드러냈다. 내용면에서도 깨달음이 있는 교훈적인 것이어서 교육적 가치가 크다.

일상의 사건으로부터 의미 있는 발견을 하고 또 그로 인해 변화하는 인식의 과정을 보여주는 구성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작가의 의식을 따라 기승전결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짜임새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거나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깨달음을 얻는 구성방식은 하나의 쓰기 과정을 보여 주는데 유익할 것이다.

이 글은 작자의 일상적 체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일반적인 생각을 엎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으로 서술된다.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 작가의 인식 변화 과정

문제의식	자신의 삶이 매우 무미건조함을 느낌. 환호하고자 하는 갈망을 드러냄.
↓	
일반적인 생각	경쟁에서 이긴 선두 주자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자 함.
↓	
새로운 체험	마라톤 대회의 후속 주자들의 정직한 고통과 고독의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음.
↓	
진정한 깨달음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정직함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통과 고독을 이겨내는 의지력의 가치를 알게 됨.

또 교사는 아래 표와 같은 예를 시범적으로 설명해주어 학습자가 아이디어를 잘 생성해 내도록 도울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변의 사물이 일상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그 결과 원래 가졌던 생각이나 본질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이 바로 수필쓰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때 학생이 곧바로 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모둠 활동이나 발표 등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말로 하거나 메모를 하도록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표 7> 학생 아이디어 생성을 돋는 교사의 시범 예

고정관념, 선입견, 일반적인 생각
일등이 좋은 것이다. - 꼴찌는 좋지 않은 것이다.
물건은 새것이 좋다. - 헌것은 좋지 않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핵심어로는 마라톤 후속 주자, 환호, 갈채, 정직하게 고통스러운 얼굴, 정직하게 고독한 얼굴, 고정관념, 선입견. 등을 들 수 있다. 학습자는 핵심어를 찾는 과정을 통해 문단의 내용이나 줄거리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며 이러한 원리는 본인의 쓰기 활동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쓰고자 하는 것의 대한 핵심어를 적어 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3)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작품의 예 제시

한국 문화를 소재로 한 글/이다도시
목탁에 맞춰 예불 드리는 소리가 대웅전에서 청아하게 들려온다. 스님들은 불공을 드리며 큰 방울 모양으로 깍아 만든 나무를 두드린다. 정신없이 복잡한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조계사에서 절의 건축

양식과 다채롭게 채색된 단청을 감상한 뒤 우리는 아는 사람만 찾아가 수 있다는 작은 찻집으로 향했다.

나는 프랑스에서 우리를 보러 한국까지 온 친구 마리옹(Marion)에게 ‘나의’ 한국을 구경시켜주고 있는 중이다. 절 맞은 편 원쪽 계단으로 내려오니 작은 골목길이 나왔다. 막다른 골목인가? 처음 와보는 사람에게는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로비를 지나고……. 이제 화장실이 나오려나? 조금만 더 가보자! 다시 원쪽으로 틀어 좁은 통로를 지나……. 미궁 속을 헤매는 여성 끝에 드디어 근사한 전통 찻집에 다다랐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들어왔던 그 건물에 아직 있는 걸까? 건물 지하인가? 잘 모르겠다.

길이 막혔나 싶어 당황한 순간 불쑥 길이 나타나고, 뱅뱅 기웃기웃 애태워야 찾을 수 있는 길의 모양새부터 한국의 냄새가 물씬 느껴졌다. 오르락내리락하는 길을 지나 마침내 찻집에 도착하니 오늘 길에 겪었던 역경을 모두 잊게 할 만큼 놀라운 세상이 펼쳐졌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이렇다. 때로는 악몽 같은 교통 정체와 언어의 장벽, 또는 불만한 곳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찾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알고 보면 한국에는 아기자기하고 예쁜 동네, 신기한 곳들이 넘쳐난다. 그래서 모험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한국은 마치 유혹하고 싶은 아리따운 아가씨처럼 사람들의 애를 태울 줄 안다. 처음 손에 닿았을 때 그리고 손에 넣었을 때의 환희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아득한 찻집에 들어가니 연꽃, 물고기, 나비 등의 매우 사실적인 그림으로 화려하게 채색된 병풍들이 공간을 나누고 있고, 그 사이사이로 조그만 찻장들이 바닥 여기저기에 놓여 있었다. 우리는 자리를 잡고 찻상에 마주 앉았다. 벗짚으로 만든 등갓 사이로 은은하게 스며 나오는 불빛이 차분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미 신발은 입구에서 벗었고 찻집 안의 훈훈한 공기에 우리는 금방 외투까지 벗는다. 연분홍과 아이보리색의 천으로 만든 한복을 차려 입은 찻집 주인이 살며시 다가와 우리의 외투를 방 한쪽에 서 있는 옷걸이에 건다. 분위기에 맞추어 은은히 흘러나오는 음악이 커가에 감미롭

게 흐른다. 가야금의 떨리는 가락과 피리 소리에 장단을 맞춘다. 이렇게 저절로 조심하게 만드는 조용한 분위기에서는 모두들 목소리를 낮추고 소곤소곤 얘기하기 마련이다.

실내에는 계피와 인삼 향이 솔솔 풍긴다. 찻집 주인아주머니가 형형색색의 마른 꽃이 사이사이 얹혀 있는 한지에 손으로 직접 쓴 메뉴를 가져왔다.

나는 추운 날씨 탓에 감기 기운이 있는 친구에게 ‘쌍화차’를 권했다. 쌍화차는 차라기보다는 약초들을 달여 계란 노른자를 ‘익으라고’ 띄워놓은 검고 뜨거운 탕약이다. 잣과 말린 대추채를 동동 띄운 이 음료는 꿀로 단맛을 낸다. 원기 회복에 좋다는 쌍화차의 강한 맛을 좋아해 나는 평소에도 즐겨 마신다. 오늘은 곶감과 통 계피를 달여서 꿀을 탄 음료인 수정과를 시켰다. 아주 차게 마시는 수정과는 정말 별미다.

주문한 차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마리옹은 바닥 난방 시스템인 온돌에 기분 좋게 놀란다. 밖은 영하 5도의 쌀쌀한 날씨인데 안에서는 온돌의 열기가 우리를 뜻밖의 방식으로 서서히 데워준다. 온돌 역시 너무나 한국적이다. 한국 사람들은 간혹 이방인을 놀라게 할 때도 있지만 꼭 이 온돌처럼 한결같은 호의와 친절을 베푼다.

주인아주머니가 차를 내온다. 아주머니는 소리 없이 작은 보폭으로 걷는다. 긴 한복 치마에 숨은 발 때문에 마치 바퀴를 단 듯이 미끄러져 오거나 바닥에서 붕 떠 날아오는 것 같다. 작은 쟁반을 두 손으로 들고 우리 곁으로 살며시 다가온다. 한복이 살짝 구겨지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무릎을 뚫고 앉는다. 다소곳이 눈을 내리깔고 쟁반에서 두 손으로 찻잔을 하나씩 상 위에 놓는다. 이어서 작은 한과 제 개가 담긴 접시를 상 한가운데 놓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우리 집 서비스예요”하고 속삭인다. 내 친구가 두 손으로 쟁반을 들고 일어서는 아주머니의 고운 한복의 자태를 칭찬하자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입가에 번지를 미소를 작은 손으로 가린다. 가벼운 몸짓으로 마리옹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시 두 손으로 쟁반을 받치며 조심스럽게 일어선다. 우리에게 인사를 하고는 여전히 바닥에서 ‘붕 떠’ 다니는 사람처럼 멀어진다. 신기하고 매력적인

장면이다. 겁 많은 암사슴, 또는 기적처럼 우리 상에 날아들었다가 한번의 재채기에 영원히 달아나 버리는 희귀한 새를 대하는 느낌이다. <중략>

글쓴이가 외국인이고 때문에 비슷한 상황 하에 있는 학습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학습자가 주동적으로 교사나 동료 학습자와 상호작용 하며 읽고 쓰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유발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러한 작품의 가치는 적지 않다.

또한 문화어라고 할 수 있는 용어들이 다수 등장하는 것이 이 텍스트의 큰 장점이다. 한국의 전통차, 김장김치 담그는 법 등 문화적 정보를 제공 뿐만 아니라 온돌, 한복의 감상을 묘사하여 아직 그것에 관한 정보가 없는 학습자에게는 호기심을 유발한다.

외국인이 한국어로 쓴 수필 작품을 읽고 고무되어 쓰기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을 수 있다.

핵심어로는 병풍, 가야금, 인삼, 곶감쌍화차, 수정과, 온돌, 한복, “우리 집 서비스예요”라는 문장의 의미 등을 들 수 있다.

2. 읽기·쓰기를 통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안

위에서 제시한 박완서의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를 활용한 학습 지도 방안을 구안해 보고자 한다. 읽기와 쓰기 두 기능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만큼 각 기능별 활동이 잘 연결 되어야 할 것이다.

수필을 활용한 학습 지도 방안의 예

-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박완서)-

◎ 수업차시: 총 2 차시 각 50분으로 나누되 본 연구에서는 1차시 수업인 읽기와 2차시 수업인 쓰기의 교수-학습 방안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 학습목표: 수필 읽기를 통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문법/문형을 이해하여 그 구조를 말하고 쓸 수 있다.

가치 있고 감동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고 글로 표현할 수 있다.

<표 8> 단원 지도 계획

차시	단계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학습 형태 및 유의점
1차시 (읽기)	준비단계	학습 목표 제시, 주요 학습 내용 제시	전체 집단 활동
	전계단계	어휘 학습, 문법학습 글의 구조도 작성하기, 요약문 작성하기	전체 집단 활동, 소집단 활동
	정리단계	쓰기 과제 예고	전체 집단 활동

2차시 (쓰기)	준비단계	교수학습 목표 확인, 서술 대상의 발견 및 확인	전체 집단 활동
	전개단계	쓰기 활동의 방법과 절차 안내 초고쓰기, 고쳐쓰기	전체 집단 활동
	정리단계	토의하기, 평가하기	전체 집단 활동, 소집단 활동



1차시

<학습 목표 제시>

제목이나 삽화, 사진 등으로 어떤 내용인지 예측하는 활동으로 학습자에게 자극을 주고 호기심을 유발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과정은 교사가 학생의 스키마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입에 할 수 있는 교사발화나 아이디어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꼴찌’와 ‘갈채’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설명해 준다.

꼴찌: 꼴등이라고도 한다. 순서의 제일 끝.

갈채: 외침, 박수 등으로 환영하거나 응원함. 박수, 환호, 함성과 유사.

오늘 우리 반에서 누가 학교에 꼴찌로 왔죠?

다음은 도입에 활용할 수 있는 사진과 질문의 예이다.



- 이 책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의견에 동의 하나요?
- 이 과의 제목과 이 책의 제목만 보고 각 책의 내용을 예측해 봅시다.



- 다음 단어의 뜻을 알아봅시다.
꼴찌, 갈채, 인내, 포기, 좌절, 성공
 -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싶나요? 고른 이유를 말해 봅시다.
- ① 마라톤에서 일등으로 들어온 사람
② 열심히 뛰다가 힘들다고 포기한 사람
③ 꼴등으로 들어왔지만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린 사람
-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과 마라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진출처 - newsis 2010.5.18

<텍스트 읽기>

작품을 통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일정한 시간을 주고 학생 개개인이 독독하도록 한다. 둘째, 학생이 돌아가면서 한 문단씩 읽는다. 셋째, 교사가 전체를 모두 읽어 준다. 넷째, 교사와 학생이 번갈아 가면서 읽는다. 다섯째, 특정한 학생이 먼저 읽기를 시작하여 발음이 틀리면 다른 학생이 바로 이어 읽는 방식이 있다. 특히 이 방법은 게임형식으로 진행하면 학생의 집중과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다. 단 적극적인 성격의 학생만 독식하게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본 수업에서는 학생이 돌아가면서 한 문단씩 읽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주요 학습 내용 제시 – 어휘 학습, 문법학습>

이때 교사는 문단 단위로 끊어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 표현이나 문장

을 설명해 주는 단계로 이 과정에서 어휘 학습과, 문법 학습, 문화 색채를 담고 있는 문화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어휘 지식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단계로 잘 알고 있는 단어, 대강의 뜻을 알고 있는 단어, 듣거나 본 적이 있는 단어, 전혀 생소한 단어를 구분하여 표시하게 한다. 잘 알고 있는 단어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전혀 생소한 단어는 활동영역에 있는 빈 칸에 적게 하고 교사가 설명해 준다. 이때 학생은 그것을 간단히 메모할 수 있으나 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전을 이용해 적는 것은 과제로 부여한다.

모르는 낱말	사전에서의 풀이

빈출 어휘가 아닌 것은 글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설명해 준다. 이 때 언어적 설명이 어려운 경우 표정을 지어주거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묘사한다.

- 새로운 단어

고소: 쓴웃음

선두주자: 대열의 앞쪽에 있는 사람

후속 주자: 선두 대열에 속하지 못하고 뒤쪽에 쳐져서 달리는 사람

갈망: 간절한 바람, 희망

얄궂게: 정상적이지 않고 별나며 괴상하다는 뜻으로 얄궂다는 남을 비꼬거나 안 좋은 쪽으로 말할때 사용함

보잘것없는: 볼 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찮다

탄하다: 남의 일에 참견하다. 남의 말에 시비조로 말하다

시들하게 : 1.풀이나 꽃 따위가 시들어서 생기가 없다.

2.대수롭지 않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

3.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키지 않다.

교통이 차단되다: 일정한 지역에서 얼마 동안 교통을 금지하는 일

진저리를 치다: 몹시 짓증이 나거나 귀찮아 떨쳐지는 몸짓

우레: 천둥

환호성: 기뻐서 크게 내는 소리

맥이 빠지다: 기운이나 힘이 없어지다

합세: 흩어져 있는 세력을 한곳에 모으다

우직한: 어리석고 고지식하다 (믿음직스럽다는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음)

속임수: 남을 속이는 짓

<글의 구조도 작성하기-핵심어 찾기 및 요약문 작성하기>

문단의 핵심내용을 학생들에게 질문하여 학생들이 단답형으로 말할 수 있게 한다. 이 때 내용 이해와 요약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후에, 핵심어를 찾고 문단을 요약하여 정리 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준 후에 질문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질문을 하는데 수준이 낮은 학습자일 경우 질문에 핵심내용의 60~70 %정도 포함시켜 질문하고 학생은 간단히 대답할 수 있게 해서 부담을 줄여주도록 한다.

아래는 활동지의 예이다.

- 각 문단에서 핵심어를 써 보세요.

첫 번째 문단 _____

두 번째 문단 _____

세 번째 문단 _____

네 번째 문단 _____

- 각 문단을 1~2줄로 요약해서 써 보세요.

첫 번째 문단 _____

두 번째 문단 _____

세 번째 문단 _____

네 번째 문단 _____

- 줄거리를 생각하면서 다음 표를 완성해 봅시다.

일어난 사건

감정의 변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멈추었다

약간 화가 났다.



(버스가 멈춘 이유는 무엇인가요? :

마라톤 선두 주자를 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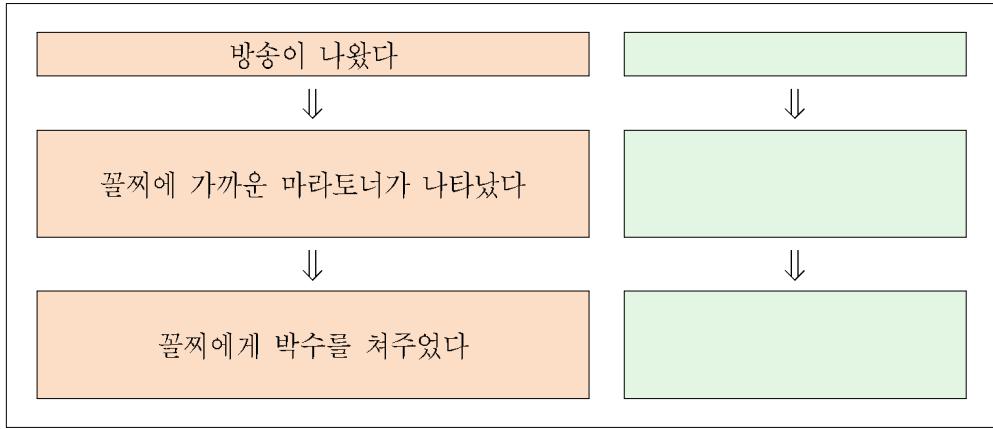
있을 것 같아서

흥분되었다.

)



라디오에서 선두 주자가 콜인 했다고



<형성평가와 쓰기 과제 예고>

형성평가는 크게 내용이해에 해당하는 내용학습, 추론에 해당하는 목표학습, 감상의 영역에 해당하는 적용학습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각 범주에서는 할 수 있는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¹⁰⁾

[내용 학습]

1. 이 글에 나타난 OO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2. 이 글로부터 조선 시대 양반가 부녀자의 삶의 모습을 찾아보자.
3. 여자가 글쓴이를 피해 빨리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이 글에는 모르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가? 글을 읽으면서 밑줄 그은 낱말들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자.

[목표 학습]

1. (동일 혹은 비슷한 소재를 다룬 글을 제시하면서) 공통된 정서를 파악해 보자.

[적용 학습]

1. 비슷한 영화를 찾아 감상해 보자.

10) 조현용(2009). 『고등학교 독서』, 금성출판사 참고, 발췌함.

2. 다른 민족의 방식을 비교해 보자.

- 그 중 내용학습과 적용학습의 범주에 속하는 질문의 예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작가가 꿀찌에게 갈채를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작가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꼈나요?
 -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들었거나 재미있었던 부분을 말해 봅시다.
 - 작가의 기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순서대로 설명해 보세요.
 - 작가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어떤 것을 보고 느꼈기 때문인가요?
 - 여러분도 처음 가졌던 생각이 바뀐 적이 있나요? 혹은 어떤 일을 겪은 후에 무엇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수필을 읽은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쓰기를 과제로 제시한다. 먼저 무엇을 쓸 것인지 내용을 정하고, 수필쓰기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쓸 것을 당부한다.

아래 도우미 1은 글감을 정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며 도우미 2는 구성을 만들어 갈 때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교사가 구두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면서 다음 차시 예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 도우미1 예 -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일반적인 생각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고정관념, 선입견, 일반적인 생각
일등이 좋은 것이다. - 꼴찌는 좋지 않은 것이다.
물건은 새것이 좋다. - 헌것은 좋지 않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 도우미2 예 - 수필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쓸 수 있어요.

1. 무엇에 대해 쓸 것인가 결정해요.	2. 그 일이나 그 사람 혹은 그 물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3. 느낀 점, 깨달은 점, 달라진 생각 등 을 줍니다.
-----------------------	---	---------------------------------

2차시

<교수학습 목표 확인>

지난 차시에서 배운 수필 텍스트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상기하면서 학습자도 작품을 써낼 수 있다는 것을 동기화 시킨다. 주변의 평범한 경험을 통해 무언가 새롭게 느낀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학습자가 바로 생각해 낼 수 없다면 어제 혹은 주말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질문해 본다. 또는 어렸을 때 겪었던 잊지 못할 일들을 회상해 보게 하는 등 이야기 거리를 찾게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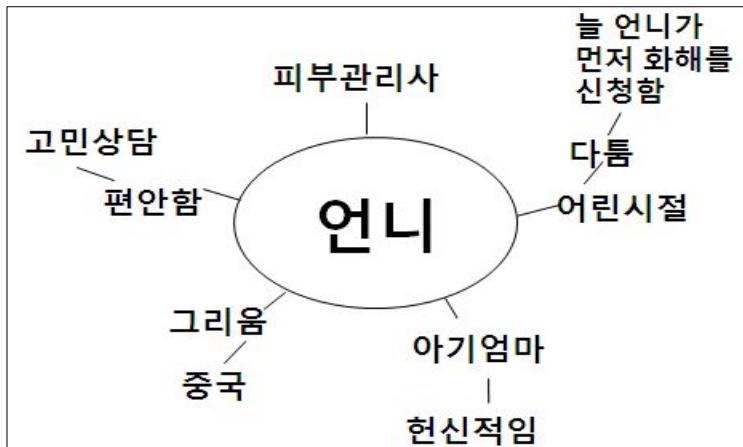
<서술 대상의 발견 및 확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아이디어를 묶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발산적 사고가 필요하다. 브레인스토밍이나 생각 그물 만들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대화로 상호작용을 하며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를 지도할 때 참고할 점은 이 단계가 평범한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하는 단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후에 사건이나 현상을 재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소재를 ‘친구’로 정했다고 가정 했을 때 ‘친구’하면 생각나는 것을 모두 적게 한다. 양에는 제한이 없고 비판도 하지 않는다.
- 생각 그물을 만들어 보게 한다.

<그림 1> 생각 그물 시범의 예



<쓰기 활동의 방법과 절차 안내>

쓰기 활동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교사가 예를 들어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학생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 생각묶기의 방법으로 개요짜기, 다발짓기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소개한다. 개요짜기는 잘 알려진 방법이고 1차시에 텍스트 내용을 분석하면서 비슷한 활동을 했으므로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로 설명해준다. 다발짓기에 대해서는 교사가 구체적으로 시범을 보이도록 한다.¹¹⁾ 이를 통해 만들어진 문장으로 문단을 구성해 보게 한다.

<그림 2> 다발짓기 시범의 예

언니

언니란 OO 이다

언니가 결혼하기 전

언니가 결혼 한 후

같은 집에서 살았다

피부관리사이다.

언니와 싸우면 항상 언니가
화해를 신청했다

아기 엄마가 되었다

언니에게 때때로 못되게
행동했다

고민이 있을 때 언니와
이야기를 한다.

초등학교 때 과롭히던
남학생을 언니가 혼내 주었다

이해심이 많은 언니가
그립다

• 어떠한 구성 방법으로 쓸 것인지 결정하게 한다. 구성 방법은 크게 시간 순서에 따른 구성,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성, 의식의 흐름 즉 생각의 변화에 따른 구성이 있다고 설명해 준다. 학습자 중에는 글쓰기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사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예를 설명해준다.

① 시간적 · 공간적 순서에 따른 구성

⇒ 시간의 순서대로 서술한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때 일이다.’ 등으로 시작할 수 있다.

② 공간에 따른 구성

⇒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 한국 친구의 언니를 보고 중국에서 언니와 함께 지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 다시 현재 한국에서 사는 나의 입장에서 서술한다. 이처럼 화자가 이야기 하는 배경이 이동하는 방법이 있다.

③ 열거적 구성

⇒ 열거적 구성의 예로는 ‘나는 이런 음식이 좋다. 채소를 재료로 하는 음식이 많아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 양이 푸짐해서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는 음식. 그래서 나는 한국 음식이 좋다.’를 들 수 있다.

④ 예화 인용하는 구성

⇒ ‘며칠 전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을 때의 일이다.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을 가지려 다시 집에 들어갔다.’ 등의 문장이 예화 인용에 해당한다.

⑤ 기타

낱말 뜻을 풀이하고 나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다.

⇒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나는 이러한 행복이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초고쓰기>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문법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서술할 필요는 없다. 메모한 아이디어로 전 단계에서 정한 글쓰기 구성 방법에 따라 빨리 쓰기를 한다.

11) 최소운(2006), 「수필 쓰기 교육의 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35~53 참고인용.

비문이어도 상관없으며 문장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좋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서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고쳐쓰기>

고쳐쓰기 단계는 초고쓰기로 적은 내용을 완전한 문장과 문단의 형태로 적는 것이다. 이 때 초고쓰기에 없는 내용이더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첨가 할 수 있도록 한다. 피드백을 통해 좋은 표현과 바른 문장을 공유하고 비문은 고쳐준다.



제 4 장 결 론

본고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고급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수필 텍스트 활용의 읽기·쓰기를 연계한 교수-학습 지도 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다.

문학 작품 특히 수필이라는 장르는 다른 장르에 비해 어휘나 문장이 일반적이고 평이한 작품이 많아 외국인 학습자가 접근하기에 수월하며 일상 경험이나 생각이나 혹은 사물을 소재로 하며, 보편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쓰여 졌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에 유리하다. 또 문화적인 측면이 문맥이나 상황 하에 자연스럽게 묘사 혹은 서술 되어 있어 문화면의 학습이 절실한 외국인 학습자에게 매우 유용하다. 또 구성적으로는 대상발견, 의미부여, 유기적 표현으로 이루어진 틀을 갖추었는데, 이는 수필 텍스트를 활용한 읽기·쓰기 통합교육의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쓰기는 읽기의 완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읽기와 쓰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읽기 활동에서 문단별로 핵심내용을 파악하고 요약하는 훈련은 쓰기 활동 시 모방 또는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구성적으로 완성도 있는 글쓰기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체험을 통한 깨달음이나 필자의 가치관이 내포된 작품 읽기는 학습자 자신의 글쓰기에 단서를 주어 그러한 글을 써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러한 읽기 지도 전략과 쓰기 활동 과정의 방법을 실제 수업에 활용하는 학습지도 방안을 고안해 보고자 했는데 이러한 훈련에서 교사의 도움 역할이 매우 크다.

작품을 선정할 때 읽기와 쓰기를 연계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한지를 살펴야 한다. 형식적으로 구성이 잘 드러나 도식화 할 수 있는 작품을, 내용적으로 수필에 녹아있는 문학적 특징을 최대한 살린 작품을 선정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박완서의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를 텍스트로 선정하였는데, 구성이 작가의 의식을 따라 기승전결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를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작가의 성향, 인생관이 일화를 통해 드러나 있는데

이는 독자로 하여금 작가의 체험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일상의 사소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여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읽기-쓰기 통합 수업에 이용하기 적절하며 내용면에서도 또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제안의 수준에 그쳤으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검증 되지 않았으며, 읽기·쓰기의 통합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수필을 이해하고 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교사가 그 구조를 이해시키고 아이디어를 생성해 내도록 돋는다면 외국인 학습자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회화위주의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 더불어 학문적인 혹은 대학진학 등을 목표로 하는 고급 학습자에게 쓰기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방안이 활발히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I. 자료

- 김대행 외(2011), 『중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 천재교육.
- 김홍은(2009), 『(쉽게 읽는) 수필작품평론』, 정은.
- 박완서(2002), 『끌찌에게 보내는 갈채』, 세계사.
- 이다도시(2007), 『한국, 수다로 풀다』, 이미지 박스.
- 이철호(2008), 『한국대표명산문선집』. 한국문인.
- 조성연(2010), 『행복한 책읽기와 수필쓰기』, 한울문학.
- (2002), 『수필쓰기와 이론과 실제』, 국학자료원.
- _____ (2009), 『고등학교 독서』, 금성출판사.

II. 연구논저

1. 단행본

- 김대행 (1992),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사상사.
- 김대행 외(2000), 『문학 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중섭(2010), 『한국어교육의 이해』, 하우.
- 문선모(2007), 『학습이론 =Learning :교육적 적용』, 양서원.
- 박영목(2005), 『국어 교육론』, 한국문화사.
- 박영목 외(2003), 『국어교육학 원론』, 박이정.
- 안경화(2007), 『한국어교육의 연구』, 한국문화사.
- 양승국(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아름다운 한국어학교.
- 오창익(2007), 『수필문학의 이론과 실제』, 나라.
- 이경화(2001), 『읽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 이윤진(2004), 『한국어 문형 표현 100』, 건국대학교출판부.

- 정기철(2000), 『읽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역락.
- 정진권 (1993), 『한국현대수필문학론』, 학연사.
- 조현용(2006), 『한국어교육의 실제』, 유씨엘아이엔씨.
- _____ (2007),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2. 논문

- 김동환(2009), 「서사 모티프의 문화 간 이야기화 양상과 한국어교육」, 국어교육학회.
- 김보경(2002), 「문학 텍스트 활용 방안 연구; 수필교육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례(2010), 「생활문 쓰기 지도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희(2010), 「시와 수필을 활용한 초·중급 한국어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장미(2011), 「한국어 교재 내의 문화 교육 양상과 개선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2009), 「'자아 바라보기'로서의 수필 쓰기 교육 방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근(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읽기와 쓰기 교수 학습에 관한 통합적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정선(2008), 「외국인을 위한 문학 교육 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수경(2005), 「고전 수필을 활용한 글쓰기 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경희(2003), 「수필을 통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태영(2009), 「설명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연정희(2003), 「사고력 향상을 위한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교수-학습 활동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귀엽(2011), 「중상급 수준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읽기·쓰기 교재 개발을 위한 문식성 과제 단위 요구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지(2007), 「외국인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수필 활용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인(2005), 「수필 교육을 위한 읽기·쓰기 통합 모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수영(2011), 「설화의 이야기판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원기(2010), 「고전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은경(2009), 「한국어 학문 목적 쓰기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주은정(2002),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정은(2010), 「‘생각쪽지’를 활용한 자기 성찰 글쓰기 수필 교수·학습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진숙(2008), 「이주노동자 자녀 대상 읽기 쓰기 교재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소운(2006), 「수필쓰기 교육의 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튀르크취외(2004), 「한국어 쓰기 교육 내용 구성연구: 터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Using Essay Literature Texts: Integrated Education of Reading and Writing

Choi Hee Myoung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Practical aspects of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have been strengthened with the flow of time for consumer- and communication-oriented education. Further, as learners' nationality, age and academic purpose are diversifying, studies of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are being done actively which consider these points.

We adopted as subjects for this research advanced learners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who aim at entering an undergraduate or graduate course. We suggested essay literature texts as textbook. Among them, we chose "An Applause to the Very Last", written by Wan-Seo Park; we devised a methodology of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This methodology is related to reading comprehension, such as understanding and appreciating the text, and step-by-step

writing.

The main points we made in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of all, we reconfirmed values of literature education of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and organized advantag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using essay literature texts and its practical purposes.

Then, we examined the relations between three viewpoints of literature classified from an angle of language education and the nature of essay. Further, we chose a text which properly shows these three viewpoints to give brief explanations of the followings: (1) the reason for selecting the essay, (2) the way of organization, and (3) key words. This will contribute to the criteria for an educational institution's or a teacher's selecting other essay as a teaching material for Korean language courses in the future.

Finally, we examined activities to strengthen the link between reading comprehension and writing from aspects of structure, content and expression. Those activities have two effects. One is to improve learners' ability to read Korean texts. The other is to actually help learners prepare their assignments and reports after entering a undergraduate or graduate course.

In conclusion, we hope that Korean language eduction using literature activities will be done actively which help foreign learners improve their communication ability and learn about Korean culture and that these learners will have a friendly attitude towards Korean literature and continue to learn Korean.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literature education, essay text, the link between reading comprehension and writing, and advanced learners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